



# Greetings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입니다.

통계청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시대에 맞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통계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제공함으로써 국가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등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통계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통계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계활용을 권장하고자 '생활 속 통계 활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처음 수상작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활용도와 접근방식에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능동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상작을 통해서 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통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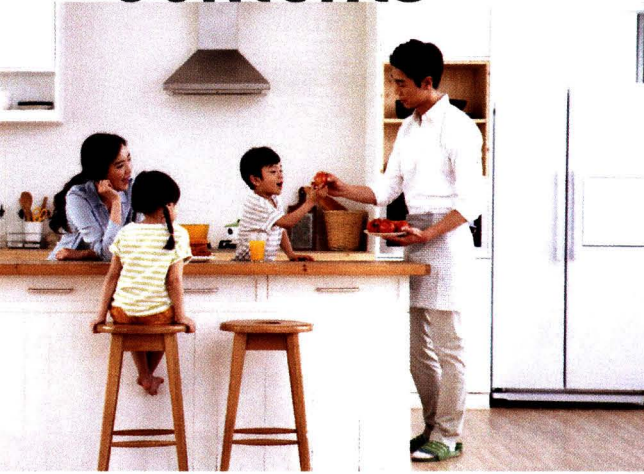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수상작들을 모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생활 속 통계의 가치를 느끼고 생각해보는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생활 속 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국민들이 통계와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통계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통계청장 유경준

# Contents



2014

수상작

**최우수상** ----- 08

김정용 \* 1,000일의 바다 ----- 08

**우수상** ----- 14

이호권 \* 부농의 꿈은 정확한 숫자에서부터 ----- 14

우희진 \* 대한민국의 평범한 맛벌이 부부되기 ----- 19

**장려상**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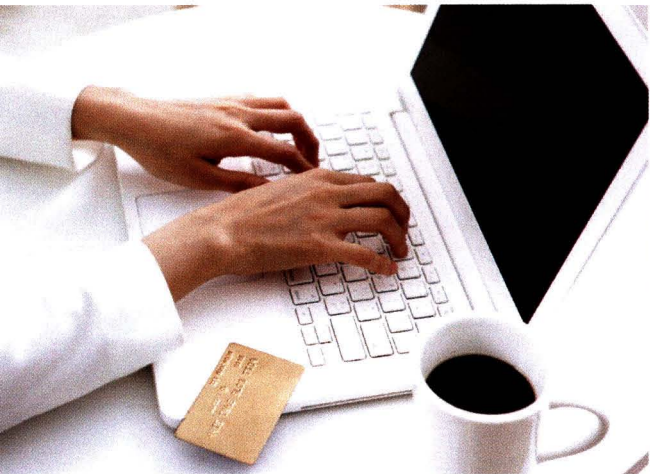
남재희 \* 노후준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8

문복례 \* 통계로 보는 내 인생 ----- 34

박동명 \* 2014년 되었던 나, 앞으로 나 ----- 41

오철환 \* 통계가 열어준 시야 ----- 50

하순태 \* 통계와 함께 한 봉사활동 ----- 52



**2015**  
수상작

<b>최우수상</b> -----	<b>58</b>
허성일 ★ 누가, 무엇으로 치킨을 튀기는가? -----	58
- 통계로 튀기는 치킨	
 <b>우수상</b> -----	<b>63</b>
송희웅 ★ 통계로 만든 우리가게 제2의 전성기 -----	63
남윤영 ★ 자녀 컴퓨터 사용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	70
 <b>장려상</b> -----	<b>77</b>
김은식 ★ 통계와 함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용어 다듬기 운동 ---	77
박찬홍 ★ 2013년 6월 그 이후 -----	81
이강석 ★ 우리학교 통계 동아리 - 기대해(EXPECTATION) -----	85
이우진 ★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 속 학교통계 이야기 -----	88
이주화 ★ 그것 봐! 너도 할 수 있어! -----	94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통계로  
소통하는  
세상이야기



2014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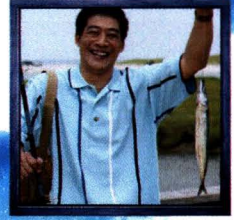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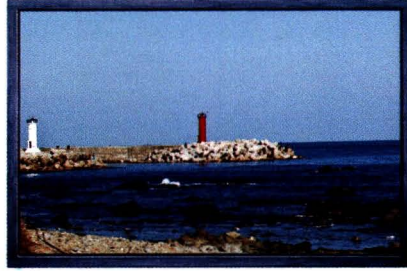
—  
최우수상  
김정용

우수상  
이호권, 우희진

장려상  
남재희, 문복례,  
박동명, 오철환,  
하순태

# 1,000일의 바다

최우수상 김정용



## 바다로 돌아오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진학을 위해 떠났던 고향을 35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여름방학이나 명절, 휴가 때면 고향을 찾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돌아오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고향을 보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나의 기억 속에는 항상 어린 시절의 바다가 있었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놀래미를 낚던 일과, 바위틈새를 헤집고 다니면서 돌계와 홍합을 잡던 기억은 생활에 찌든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 주었고, 그때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도시의 삶을 지탱해야 했다. 내가 태어나 자란 동해바다에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다. 도시의 나쁜 공기와 물보다는 시골의 맑은 공기와 물이 몸에는 더 좋다는 통계도 있었고, 지난 3년간 살아보니 실제로 그랬다. 다행히 딸아이라도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잡았기에 더 이상 '자식 교육 때문에 도시에 살아야겠다'는 고민이 없는 점도 우리의 귀향 결정에 한몫을 했다.

귀향을 하기 전에 할 일을 먼저 찾아야 했는데, 시골이라 도시에서 하던 일과 연결되는 일을 쉽게 구할 수 없어 고민을 꽤 했다.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는 좋아하는 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과감하게 어부가 되기로 하고, 필요한 조건을 갖춰나갔다. 어선을 한 척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마을 어촌계 가입도 타진해보았다. 또한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인 문어와 소라, 장어의 조업허가권도 구입해야 했다. 나는 내 적성에 맞춰서 혼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통발허가권이 딸린 2톤이 되지 않는 소형 어선을 한 척 구입했다.

세무서에 어선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구입해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우리의 귀향이 마무리되었다. 뜻하지 않은 아내의 투병으로 귀향한 나는 매일 바다를 만나는 유년의 기억처럼 살 수 있는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 바다로 나가보자

고향을 지키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환갑이 되실 때까지 통발 어선을 운행하셔서 나의 통발 어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나 또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가끔은 아버지의 어선에 동선하여 조업을 거들어 드렸기에 ‘나는 할 수 있어! 경험자인데’ 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다. 아버지께서 통발 일을 하실 때는 통발의 주 재료가 대나무였지만, 지금은 철과 특수사로 엮어진 통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아버지의 배는 흔히들 펜마라고 칭하며 사람이 노를 젓는 목선이었지만, 요즘 어선은 모두 FRP로 만들고 엔진이 달려있어 자동차처럼 핸들을 돌리는 형태라는 거였다.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나의 통발 조업에 조언을 하고 싶어 하였고, 나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통발의 줄을 엮고 미끼를 끼워 바다로 던져 넣었다. 결과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환경이 바뀌었는데 너거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대로 수확이 0였다. 단 한 마리의 문어도 내 통발 속에는 들어오지 않아, 첫 조업에서는 빈 통발만 100개를 끌어올리느라 팔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때서야 나는 아버지께서 어선 일을 그만두신지 30여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선만 한 척 있고 출항만 부지런히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더 이상 엑셀 프로그램으로 통계를 낼 일은 없을 거야.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구먼!’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엑셀 프로그램은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머릿속에 통계는 있어야 하는 일이 바로 바다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첫 조업의 실패는 쓴맛을 주었지만, 좋은 처방이 되어주었다. 무작정 내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배운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고향에는 통발로 문어를 잡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나는 이 친구에게 가서 ‘당분간 너의 배를 타고 조업을 거들어주면서 일을 배우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았다. 일당을 주고서라도 선원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라 친구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고, 1개월여를 친구의 배를 타고 문어와 장어, 소라를 잡는 조업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통발 조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와 나와의 실랑이가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아버지께서는 30년 전에 조업하셨던 바다 환경만을 생각하셔서 내가 늘어뜨리는 원줄 및 부줄의 길이와 굵기에 제동을 거셨고, 나는 달라진 바다환경을 설명하면서 친구가 가르쳐준 방식을 갖고 설전을 벌이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해보죠’라며 아버지의 방식대로 통발을 바다로 던지지만 역시나 수확은 없었다.



## 바다는 변했다

저기예다가 정자에서 노후를 보내시면서 이제는 바다 일에서 손을 뗀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6mm 굵기의 밧줄이 부줄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mm라야 된다, 또 어떤 이는 밧줄 속에 쇠가 들어있는 원줄을 쓰는 것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가 좋다는 등 혼자서 다 듣기에는 헛갈리기 좋은 조언들이 줄줄이 내게로 들어왔다. ‘너무 헛갈린다’는 내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올 한해는 수확이 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전부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의 출항 결과를 전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수심과 밧줄의 길이나 굵기, 어떤 절기에 어느 위치가 어획량이 좋은지도 통계가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하면 되죠. 1년은 시험기간으로 삼으면 마음 편할 거예요” 다행히 아껴 쓰면 일 년간은 충분히 버틸 만 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평생 동안 할 일이니 1년 정도의 연습기간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나는 노트 한권을 배의 엔진실에 비치할 했다. 집에도 한권을 비치하고 그날그날의 조업상황과 수확, 그리고 날씨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A라는 마을 어른께서 ‘○○쯤에 가면 지금쯤 문어가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업을 갔고, B라는 분이 ‘○○는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니까 장어가 많다더라. 통발은 ○○것을 써봐라’고 하면 거기에 맞춘 통발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였다. 미끼도 어떤 사람은 ‘돼지비계’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청어’가 좋다, 또 어떤 이는 ‘아무리 그래도 정어리가 최고지’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나는 이 모든 미끼들을 골고루 쓰면서 그때마다의 어획량을 빼지 않고 기록했다. 그러니 집 마당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통발과 밧줄들이 줄줄이 펼쳐져 있어, 누가 보아도 통발 조업을 하는 어부의 집이라는 표시가 확 날 정도였고, 남들이 쓰지 않는 미끼를 시도하느라 냉동고에는 각종 미끼용 수산물들이 보관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말대로 하면 많이 잡을 건데 쫓쫓’하시면서 어지럽혀진 마당을 보고 혀를 차곤 하셨다. 아버지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시든 나는 끈질기게 내 방식대로 노트에 조업상황을 적어나가면서 하나 둘 터득을 하게 되었고, 내 통발 속에 들어오는 문어와 장어, 소라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마을 분들이 ‘○○에 가면 문어가 많다’거나 ‘지금은 ○○쯤에 소라가 군락이다’고 했던 곳들은 하나같이 허탕이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분들 또한 아버지처럼 바다 일을 그만두신지 최소한 5년은 넘은 분들이었고, 그 동안에 바다의 환경과 지형이 변해버린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우리 마을의 모래사장은 넓고 길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이 해수욕장을 겨우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와 폭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바다의 지형은 변해버렸다.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바다모래 채취와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항구의 물 흐름이 바뀐 것도 원인이었다. 그러니 예전에는 문어가 알을 낳던 장소도 바뀌고, 소라들이 군락을 이루던 장소의 환경도 바뀌어버리는 탓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곳들의 서식 환경도 함께 달라져 버린 거였다. 이런 사실을 조금씩 인지하면서 나의 노트에는 출항하여 조업할 때마다의 기록이 쌓여갔고, 조금씩 조업실적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8개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내 어선이 갈 수 있는 반경(수심)까지의 데이터를 70%정도는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그 해 12월에는 처음으로 수협 위판장에 문어를 신고 가서 위판을 해보는 첫 경험도 하게 되었다.

## 바다도 통계를 좋아한다

그리고 보면 위판장의 입찰가격도 매일 변동이 있었는데 특정 일이나 특정 요일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가는 수협위판장의 경우는 금요일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다. 그리고 웬만하면 일찍 입찰을 받을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이 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위판장에 늦게 도착하여 입찰순서가 뒤로 밀려버리면 그때는 이미 중매인들도 ‘앞에서 샀으니까 뭐’ 하는 마음에 좀 낮은 가격을 쓰는 거였다. 그리고 내가 잡는 참소라는 여름이 가장 비싸고, 5월과 6월은 싼 편이다. 장어도 마찬가지로이다. 문어는 명절을 앞두고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추석, 설날, 그리고 정월 대보름 직전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 문어를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족관에서 문어를 살려 모아두었다가 명절 직전(일주일전 쯤)에 위판장으로 싣고 오는데, 나는 처음에 그걸 몰라 수족관에 어느 정도의 양만 무조건 새벽에 위판장으로 갔다. 갈 때마다 Kg당 낙찰가를 노트에 적으면서 비교해보니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와 요즘은 요일과 시기를 맞춰서 싣고 가는 요령도 생겼다.

힘들게 조업하여 잡은 수산물인 만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니까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면 수족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수족관의 온도설정을 가늠할 수 없어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듣고 무조건 13도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제는 이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서 계절별, 수족관을 채운 어종, 그리고 양에 따라 온도조절을 달리하는 것도 터득하여 관리가 쉬워졌다. 수족관 조절밸브 위에 이 데이터를 붙여놓으니 급할 때는 아내가 수족관 온도설정을 할 수 있기도 하여 데이터를 뽑은 보람도 있다.

이 데이터는 내가 잡은 수산물들을 위판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받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판장에서 입찰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문어나 소리를 수족관에 보관·관리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입찰을 끝내고 다른 수족관에 넣었을 때도 팔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 통에 위판장에 문어나 소리를 펼쳐놓으면 팔팔한 기운을 못 이겨 계속 돌아다녀서, 입찰을 받은 중매인이 갖고 가기 전까지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기분 좋은 불편함도 있기는 하다. 그렇기에 내가 잡은 문어와 소라에 중매인들이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자부심도 느껴지고, 가격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것보다 10%정도 높으니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의 느낌도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나는 1년이 되지 않아 우리 항구에서 가장 문어를 잘 잡는 어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내게 ‘○○댁 막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니만, 이제 보니 그게 다 쇼였나 보네. 아마도 재는 도시에서 직장에 다닌 것이 아니고 통발 배를 탔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문어를 우째 저래 잘 잡겠노?’ 라며 ‘속았다!’ 는 식의 표현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되니 이웃 마을에서 통발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쳐놓은 통발

근처에 통발을 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말았다.

요즘은 내가 통발을 친 근처를 보면 나의 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표까지 줄줄이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양식을 하는 곳인가?’ 하는 지경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내 통발에는 들어오는 문어가 그 사람들의 통발에는 없거나 적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참 이상타’고 했지만,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바다위치와 수심, 시기에 따라 미끼의 종류에서부터 원줄과 부줄의 길이와 굵기, 거기에다가 하나의 원줄에 연결하는 통발의 숫자까지도 조절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어통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원줄에 50개의 통발을 단다. 배가 더 크면 80개를 다는데, 나는 이 숫자를 통발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15~50개선에서 조절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 어부도 자신만의 漁法이 있어야

태풍과 더위가 번갈아오는 여름이 되면 나는 도다리와 소라만을 잡는다. 나의 데이터에 따르면 내가 조업하는 수심의 바닷 속에는 6개월간은 문어와 장어가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이 다가오면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크지 않은 소형어선으로는 문어를 따라 먼바다를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을 해수욕장 개장준비를 하는 6월부터 추석까지는 거의 도다리와 회로 먹는 생선(잡어)을 낚시로 잡고, 틈틈이 통발로 참소라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처음에 내가 ‘여름에는 도다리를 잡아야겠다’고 하자, 친구는 ‘통발만 하던 사람이 무슨 낚시냐? 그냥 쉬어라’고 했지만, 나는 낚시로 도다리를 낚아보기로 했다. 내가 잡은 참소라를 공급받는 횡집에서 내게 여름 한 철 동안은 도다리도 공급해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소라를 싱싱한 상태로 갖고 오는 것을 보면 도다리도 믿어도 되겠다며 부탁을 해 와서 그러자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첫날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지만 잘 낚이지 않았다. 그걸 보고 도다리 낚시만 30년을 하신 마을 어르신께서 ‘문어의 귀신이 도다리는 잘 안 되나보네. 하긴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으께. 내가 갈쳐 주까?’ 하면서 나를 놀리셨다. ‘아하! 이것도 뭔가 연구를 좀 해야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뽕들의 무게와 낚시줄의 굵기, 낚싯대의 철사 굵기와 재질, 낚싯대와 뽕들을 연결하는 줄의 굵기와 길이까지 체크해가며 도다리 낚시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는 ‘뭘 또 연구냐? 어부는 그냥 무작정 바다로 나가면 돼’라며 나의 이런 연구를 시큰둥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열흘 정도 후에는 낚싯대를 드리울 위치에 맞는 낚시의 종류와 방법을 알게 되었다. 도다리를 잘 낚을 수 있는 내 나름의 방법이 정립되고부터는 도다리 잡이의 재미를 알게 되어 한 번 출항을 하면 최소한 10Kg의 수확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생겼다. 배에서 거래하는 횡집까지 도다리를 싱싱한 상태로 운반해야 하는 문제였다. 도다리는 물의 온도에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온도가 틀리면 횡집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직후에 죽어버린다. 죽은 도다리는 횡집으로 쓸 수 없기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 도다리를 싱싱하게 횡집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또 강구해야 했다. 아이스박스를 사용해보나, 양동이에 담아 빨리빨리 움직인다, 비닐에 넣고 공기구멍을 틔운 다음에 가져가본다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시행착오 끝에 내 형편에 맞는 운반법도

찾아내게 되었다.

이런 나를 보고 횡집 사장님께서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어부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오는 도다리는 죽는 비율이 높는데 김선장이 가져오는 도다리는 죽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그리 빨리 알아냈습니까?’ 라며 경탄을 했다. 나는 나의 비법을 알려드리며 이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 비법은 통계죠. 저는 직장생활 동안 줄곧 통계업무를 했는데, 어부 생활도 통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우리의 생활은 통계와 함께 꾸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통계나 엑셀을 쓸 일은 없을 거야’ 했던 내 생각은 착각이었음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 통계로 함께한 1000일의 바다에서 나는 행복이라는 삶을 건져 올리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바다 지형과 환경은 변할 것이다. 그때마다 나의 통계도 변할 것이지만, 통계가 주는 생활의 편리함은 여전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바다로 나간다.

# 부농의 꿈은 정확한 숫자에서부터

우수상 이호권



열심히 키운 한우 두 마리를 우시장에 내보내고 마지 심사를 받는 심정으로 등급이 결정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비육도 잘 하고 덩치도 잘 키워냈기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다림 끝에 받은 등급은 1등급이었다. 2등급 이하의 소 보다는 낫지만 1+, 1++등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실망해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번에는 왜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겁니까?”

“지방 함량이라 마블링이 안 좋았어. 비육하는 시기에 좀 더 곡물사료에 신경 썼어야지...”

내 손을 거쳐서 출하된 한우가 스무 마리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도 1++등급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내가 키운 한우들은 구제역이나 수입산 소고기 때문에 더 가격이 떨어져가고 있었다.

귀농을 결심한 것은 6년 전이었다. 길게 생활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경쟁이 덜한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한우 사육이었고 직장에 다니면서 들어둔 적금과 퇴직금을 가지고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것을 믿고 귀농한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적응은 쉽지 않았다. 농사일과 가축을 사육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가 구제역 파동 같은 것이 나면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인지라 더욱 타격을 입는 일이었다.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왔다가도 밤에 비라도 내리면 다시 논밭으로 나가서 작물을 살펴야 하고 축사로 돌아와서 가축을 살펴야 했다. 힘들게 일하더라도 내가 키운 소들이 좋은 값이라도 받으면 모를까 낮은 등급을 받을 때면 기운이 빠져버렸다.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석에 내보내기로 한 소를 비육하면서는 곡물사료를 듬뿍 먹이면서 건초의 양을 줄였다. 사료값을 아끼지 않고 무조건 1++등급을 한 번 내보기로 한 것이다. 사료를 아끼지 않고

먹이며 비육해서 추석에 출하한 한우 세 마리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를 판 가격보다 사료값이 더 나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한우 사육현황**

	초기 송아지가격	비육기간 사료값 (곡물사료, 건초)	기타비용 (수의사, 약값)	판매가격	수익
1등급 비육	170만원	120만원	6만원	295만원	-1만원
1++등급 비육	170만원	165만원	8만원	335만원	-8만원

당시의 사료값과 한우 거래가격을 계산해보면 1++등급을 내기 위해서 사료를 먹인 소는 가격 자체는 더 높게 받았지만 사료값이 높아지다보니 오히려 적자가 더 크게 나는 경우가 생겼다. 사료회사에서 나오는 비육표나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연구표에 나오는대로 비육을 하면 1++등급은 받을 수 있지만 산지에서 거래되는 한우 가격이 너무 떨어진 탓에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만 이렇가 하고 주변의 농장들을 찾아보면 2~30마리 정도를 키우는 집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축협에 사료값만 빚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50마리 넘게 키우는 분들은 어렵다고는 해도 적자는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설마 규모의 경제가 한우를 키우는데도 통하는 것일까? 혹시나 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는 없을까? 찾아보다가 통계청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었고 거기서 정말로 규모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가 갈린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우 비육우 두당 수익**

비목별	2010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조수입 (A)	6,679,156	6,650,889	6,892,386	7,052,395	6,806,424
일반비 (B)	4,801,552	4,883,769	4,784,453	4,970,360	4,858,187
비용합계 (C)	6,428,962	5,967,260	5,816,016	5,997,591	6,067,019
소득 (A-B)	1,877,604	1,767,119	2,107,933	2,082,035	1,948,237
순수익 (A-C)	250,193	683,629	1,076,370	1,054,803	739,405

비목별	2011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조수입 (A)	5,348,293	5,570,623	5,715,784	5,977,095	5,657,584
일반비 (B)	5,392,008	5,492,290	5,360,966	5,582,613	5,468,237
비용합계 (C)	7,056,548	6,840,331	6,645,092	6,693,017	6,823,124
소득 (A-B)	-43,715	78,333	354,819	394,482	189,347
순수익 (A-C)	-1,708,255	-1,269,708	-929,308	-715,922	-1,165,540

## 한우 비육우 두당 수익

비목별	2012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조수입 (A)	5,385,496	5,978,496	6,083,805	6,370,307	5,996,775
일반비 (B)	5,226,014	5,600,402	5,424,858	5,845,357	5,558,414
비용합계 (C)	7,041,532	7,164,974	6,662,945	6,800,615	6,912,757
소득 (A-B)	159,482	378,094	658,947	524,950	438,361
순수익 (A-C)	-1,656,036	-1,186,478	-579,140	-430,308	-915,982

비목별	2013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조수입 (A)	5,484,831	5,904,348	6,147,822	6,057,619	5,935,643
일반비 (B)	5,143,897	5,209,732	5,072,247	5,702,036	5,344,570
비용합계 (C)	6,926,101	6,602,839	6,006,255	6,542,208	6,508,918
소득 (A-B)	340,934	694,616	1,075,575	355,583	591,073
순수익 (A-C)	-1,441,270	-698,491	141,567	-484,589	-573,275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E0110&conn\\_path=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E0110&conn_path=2)

최근 4년간을 살펴봐도 확실히 50두 이상을 키우는 농가의 수익은 손실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료를 보관하는 사일러 건축비나, 분뇨를 치우는 농장용 트랙터, 분뇨처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고정비용이 되다보니 어느정도 규모를 키우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당장 내가 처리할 수 있는 2~30마리 정도만 키우는 것은 오히려 적자를 키우는 것이겠구나. 통계자료가 말하는 수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엔 비육하는 한우에게 사료를 어떤 비율로 비육을 할 것인가를 나만의 수치를 가지고 정량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철저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료량과 건초량, 그리고 비육기간에 따른 등급의 차이와 비용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수치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새끼를 낳는 소를 제외하고 비육하여 출하되는 소는 송아지때부터 보통 20~26개월을 비육해서 판매하게 된다. 외부에서 어느정도 자란 송아지를 사 올 때는 짧게는 10개월에서 15개월을 비육해서 출하되는 소들도 있다. 복잡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농장에서 낳거나 낳은지 얼마 안 되어서 농장으로 사온 송아지들은 제외하고 출하를 5~6개월 앞둔, 마블링과 살찌우기를 해야 하는 시기의 소들을 대상으로 사료와 건초의 배합을 통해서 비용과 수익의 최적점을 찾아야 했다. 수십년간 소를 키워오신 분들은 수치화된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감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나같은 초보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사료를 야기다보면 등급이 낮아지고, 사료회사에서 주는대로 먹이다보면 적자가 나고 있었다. 각 소들의 상태나 암수의 차이,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차이들도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1년 반이 넘게 계속 그 최적점을 찾아가는 중이고 어느정도는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내고 있다.

농후사료, 조사료, TMR사료의 비율과 각 사료들의 세부 종류까지 수치화 되어서 비교할 수 있었는데, 내가 키우는 방식이 평균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르면서 나만의 특화된 장점을 통해서 높은 등급과 사료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실제로 내 생활에서 통계가 어떻게 쓰일까? 하는 생각을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야 그래도 1인당 GDP니 어찌니 하는 숫자들을 보면서 귀담아 듣고는 했지만 농사일을 시작하면서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고, 오만한 생각이었다. 농사야말로 숫자가 가장 필요한 일터였다. 소를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예전처럼 집안의 살림 밀천으로 키우던 시대는 지났다. 규모에 따른 손익을 따져보고, 사료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통계수치를 보면서 그 평균속에서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대의 농업이다.

낭만적인 농촌은 이제 없다. 농부들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는 CEO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귀농했고, 초반에는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도 자신감을 찾아간다.



**한우 비육우 두당 사육현황**

비목별	2012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사육두수	-	-	-	-	-
건물	22.62	19.49	17.77	14.28	18.15
토지	69.53	128.52	67.22	34.77	72.48
기타	0.25	0.47	0.06	0.09	0.21
자본평가액(원)	5,961,094	6,392,367	5,793,310	5,795,026	5,977,800
가축자본액	1,894,212	2,054,300	2,012,500	2,283,138	2,083,059
유동자본액	1,604,861	1,603,999	1,584,184	1,705,479	1,632,138
대농구자본액	220,031	283,099	226,737	138,322	211,024
건물자본액	1,292,713	1,345,766	1,260,644	1,074,076	1,229,246
토지자본액	949,277	1,105,203	709,245	594,011	822,333
(자기자본액)	5,023,586	5,438,324	5,024,935	5,084,944	5,145,417
(차입자본액)	937,508	954,043	768,375	710,082	832,383
자기자본구성비(%)	84.27	85.08	86.74	87.75	86.08
노동력투하량 (시간)	95.24	67.96	52.51	30.94	58.74
사료조리및급여	48.80	37.26	30.17	15.47	31.30
야생초예취및운반	0.29	0.10	0.00	0.00	0.09
방역치료및손질	11.43	7.74	5.69	3.92	6.88
구입및판매	1.81	1.11	1.29	0.73	1.18
청소(분뇨제거등)	21.87	15.38	10.24	6.93	12.98
기타	11.04	6.37	5.12	3.89	6.31
(자가노동)	93.76	67.22	45.36	22.53	54.02
(고용노동)	1.48	0.74	7.15	8.41	4.72
자기노동구성비(%)	98.45	98.91	86.38	72.82	91.97
사료급여량(kg)	7,603.70	8,263.52	8,060.70	8,187.08	8,051.16
농후사료	4,191.37	4,222.48	4,075.36	4,252.34	4,193.13
조사료	2,301.56	2,289.47	2,479.31	2,171.35	2,295.92
TMR사료	1,110.77	1,751.57	1,506.03	1,763.39	1,562.11

출처: [http://kosis.kr/stall/html/stal.html.do?orgId=101&tblId=DT\\_1EE0111&conn\\_path=12](http://kosis.kr/stall/html/stal.html.do?orgId=101&tblId=DT_1EE0111&conn_path=12)

그리고 위의 자료처럼 한우 비육우 두당 사육현황 자료들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다른 농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육을 하고 있으며, 내가 비육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도 비교할 수 있었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되기

우수상 우희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되기”라는 목표로 현재 나와 아내의 소득을 통해 가계수지항목별의 적정 소비배분을 고려해보았고 또한 양육이라는 큰 몫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금액, 현재 맞벌이가정에서 중요시되는 가사분담 등을 통계에 근거하여 구분해 보았다.

〈표 1〉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014년 1/4분기)

가계수지항목별	가구원수별 (2인)	가구주 산업별 (문화, 협회등)	소득계층별 (200-300)	소비지출 계층별 (200-300)
소비지출 (원)	2,130,780	2,866,380	1,834,046	2,461,643
01.식료품·비주류음료 (원)	275,797	354,499	264,091	322,067
02.주류·담배 (원)	27,695	21,385	29,489	26,188
03.의류·신발 (원)	129,006	192,975	101,626	166,750
04.주거·수도·광열 (원)	299,712	342,967	258,323	285,706
05.가정용품·가사서비스 (원)	78,401	111,982	57,372	86,491
06.보건 (원)	153,455	168,971	118,249	159,317
07.교통 (원)	327,869	365,194	169,782	230,399
08.통신 (원)	117,622	159,910	152,392	180,844
09.오락·문화 (원)	117,307	178,607	88,657	145,609
10.교육 (원)	126,834	378,022	212,483	319,998
11.음식·숙박 (원)	278,171	348,570	237,811	345,794
12.기타상품·서비스 (원)	198,912	243,298	155,568	211,589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맞벌이 부부(2인), 나와 아내의 직종분류, 소득분류(내급여 제외), 소비지출(아내급여 기준)로 아래와 같이 가계수지항목별 급여지출대비 소비지출비율을 표로 나타내었으며(단, 비소비지출은 제외) 우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비율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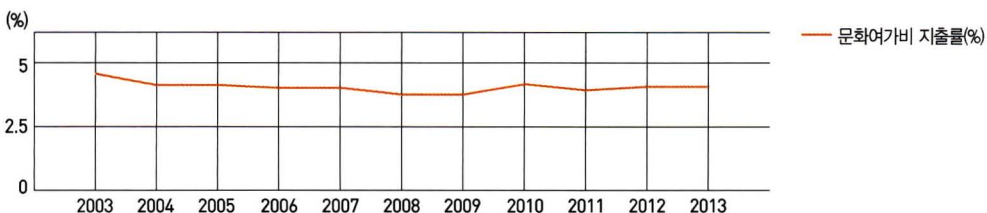
〈표 2〉 우리가족 가계수지비율 적용

가계수지항목별	가구원수별 (2인)	가구주산업별 (문화, 협회 등)	소득계층별 (200-300)	소비지출계층별 (200-300)	우리가족
	근로자가구				
01. 식료품·비주류음료 (%)	12.9	12.4	14.4	13.1	12.4
02. 주류·담배 (%)	1.3	0.7	1.6	1.1	0.0
03. 의류·신발 (%)	6.1	6.7	5.5	6.8	2.4
04. 주거·수도·광열 (%)	14.1	12.0	14.1	11.6	6.3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3.7	3.9	3.1	3.5	2.4
06. 보건 (%)	7.2	5.9	6.4	6.5	7.3
07. 교통 (%)	15.4	12.7	9.3	9.4	19.4
08. 통신 (%)	5.5	5.6	8.3	7.3	8.7
09. 오락·문화 (%)	5.5	6.2	4.8	5.9	7.3
10. 교육 (%)	6.0	13.2	11.6	13.0	4.9
11. 음식·숙박 (%)	13.1	12.2	13.0	14.0	7.0
12. 기타상품·서비스 (%)	9.3	8.5	8.5	8.6	19.4

확인 결과, 우리가족의 환경과 비슷하게 대조한 결과 항목7, 항목12, 항목9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았으며, 항목4, 항목10, 항목11에 대해서는 낮았다. 이에 우리가족 지출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각 네 항목별을 평균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조정을 해보았다.

현재 가계예산 범위 내 문화생활지출비율이 적당한지 판단이 들지 않고 또한, 계획 없이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보게 되면 나의 지갑이 가벼워진 것을 일찍이 경험해 봤기에 통계 수치를 근거로 문화여가 지출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률



〈표 3〉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률

(단위: 천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문화여가비 지출	가구소득	3,200	3,391	3,432	3,632	3,842	4,077	4,162
	가계지출	2,584	2,718	2,776	2,961	3,115	3,217	3,262
	문화여가비지출액	107.7	108.9	112.3	126.6	128.9	135.7	139
	문화여가비 지출률	4.17	4.01	4.04	4.27	4.14	4.22	4.26
	소득 대비 문화여가비지출	3.4	3.2	3.3	3.5	3.4	3.3	3.3
문화여가비 지출구성	영상음향기기	7.9	8	8.2	7.2	7.1	6.3	4.4
	정보처리장치	9.2	7.5	8.3	7.7	7.2	6.2	5.6
	사진광학장비	1.9	1.8	1.9	1.7	1.3	1	0.8
	기록매체	0.3	0.3	0.2	0.2	0.2	0.2	0.2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0.8	0.8	1	1	0.9	0.8	0.7
	오락문화내구재	0.2	0.2	0.2	0.2	0.2	0.2	0.4
	악기기구	1.5	1.2	0.9	0.9	1.1	1	0.8
	오락문화내구재 유지및수리	0.2	0.2	0.1	0.1	0.1	0.2	0.2
	장난감 및 취미용품	3.3	3.6	3.9	3.8	4.4	4.5	4.9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3.8	3.9	3.8	4	4.5	4.5	4.8
	화훼 관련 용품	2.3	2.2	2.3	2.2	2.2	2.2	2
	애완동물 관련 물품	1.2	1.2	1.3	1.3	1.6	1.7	1.7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1	1	0.8	0.9	0.9	1	1.1
	운동 및 오락서비스	10.7	11.8	11.7	11.5	11.5	11.6	12.8
	문화서비스	18	18.9	20.1	19.2	20.4	20.8	21.2
	복권	0.3	0.3	0.3	0.2	0.3	0.2	0.2
	서적	19.4	20.8	18.9	17.3	16	14	13.4
	기타인쇄물	2.3	2.6	2.6	2.1	1.9	1.7	1.5
	문구	2.9	3	3	3	3.5	3.7	4.1
	단체여행비	12.8	10.6	10.6	15.4	14.8	18.1	19.1

이와 관련, 통계청의 문화여가비 지출률을 보면 4.3%이며 소득대비 문화여가비 지출률은 3.3%였다. 또한 각 구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화여가비는 운동 및 오락, 문화(영화, 공연 등), 서적, 단체여행비 정도면 충분하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여가비는 66.5천원이었으며, 소득대비 문화여가비 지출은 총 16.5천원이 적당하다고 판단, 이에 월 영화 1편은 꼭 보기로 하였고 잔액은 지속적으로 금액을 쌓아 여행비 또는 공연관람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이에, 문화여가비는 위 근거치를 이용하여 3.3%를 문화여가비로 설정하여 가계수지 항목을 조정해 보았다.

〈표 4〉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률 조정결과

가계수지 항목별	4항목 평균	조정전	조정후
01. 식료품·비주류음료 (%)	13.2	12.4	14.4
02. 주류·담배 (%)	1.2	0.0	-
03. 의류·신발 (%)	6.3	2.4	4.5
04. 주거·수도·광열 (%)	12.9	6.3	9.6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3.6	2.4	3.1
06. 보건 (%)	6.5	7.3	7
07. 교통 (%)	11.7	19.4	15.5
08. 통신 (%)	6.7	8.7	7.7
09. 오락·문화 (%)	5.6	7.3	3.3
10. 교육 (%)	10.9	4.9	7.9
11. 음식·숙박 (%)	13.1	7.0	11
12. 기타상품·서비스 (%)	8.7	19.4	14.5

이에, 각 항목에 따른 비율조정을 통해 표를 정리한 결과 위와 같이 우리가족에 알맞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향후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항목의 수도 늘어날 것을 예상되며, 또한 자녀를 낳으면서 이에 따른 자녀양육비 예산 편성도 필요함을 느껴 다음과 같이 자녀양육비 통계를 활용하여 예상 확보액을 추정해보았다.

〈표 5〉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단위: 만원)

가구 및 아동특성별	2009						
	분석아동 수(명)	주거 및 광열 수도비 (만원)	가구집기, 가사용품 비 (만원)	교양·오락비 (만원)	교통통신비 (만원)	기타 소비지출 (만원)	합계 (만원)
전체	11,496	5.5	1.3	2.6	11.2	20.4	41.0
0~2세	1,347	4.8	1.5	2.2	10.0	19.0	37.5
3~5세	1,227	4.6	1.4	2.4	9.7	18.7	36.8
6~11세	3,176	4.7	1.2	2.4	9.8	18.3	36.4
12~14세	1,791	5.1	1.3	2.5	10.8	19.4	39.1
15~17세	1,778	5.7	1.3	2.6	12.0	20.8	42.4
18세 이상	2,177	7.7	1.4	3.3	14.4	25.8	52.6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표를 확인하여 2009년 보면 월평균 필요한 자녀양육비는 41만원이 필요하며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을 통해 2014년 현재(소비자물가지수 1.7%)로 계산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비, 전년동월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분기	2014 2/4분기
소비자물가	4.7	2.8	3.0	4.0	2.2	1.3	1.3	1.7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현재 월 필요한 자녀양육비는  $41 \times 1.04 \times 1.022 \times 1.03 \times 1.07$ 로 월 약 48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내의 임신에 따른 직장근무 곤란시를 대비하여 2014년도 하반기부터 자녀양육비 항목으로 월 50만원씩을 저축하기로 하였다.

우리 부부 둘 다 경제활동(맞벌이)을 함께 가사분담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우리부부는 집에서 평일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 생활패턴으로, 가사분담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이에, 주요 10개 가사노동 수행 빈도표를 확인하여 나와 아내가 각각 집안에서 하고 있는 가사 일을 정한 후, 표에 따른 횟수와 1회 평균시간을 곱하여 불균형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

10개 가사노동 수행빈도(일주일 평균)(2010)			
가사노동	유형	항목	2010
식사준비	전체	횟수	10.2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42.5
		1주일 평균소요 시간 (시간)	7.6
	맞벌이	횟수	8.5
		1회 평균소요 시간 (분)	43.8
		1주일 평균소요 시간 (시간)	7.3
설거지	전체	횟수	9.6
		1회 평균소요 시간 (분)	21.3
		1주일 평균소요 시간 (시간)	3.4
	맞벌이	횟수	8.1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22.9
		1주일 평균소요 시간 (시간)	3.0
세탁	전체	횟수	3.1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40.2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2.2
	맞벌이	횟수	3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38.7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2.0
다림질	전체	횟수	1.8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24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0.7

다림질	맞벌이	횟수	1.8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25.9
집안청소	전체	횟수	3.8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32.4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2.1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전체	횟수	3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12.9
		1주일평균 소요 시간 (시간)	0.6
	맞벌이	횟수	2.8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13.5	
쓰레기분리수거	전체	횟수	1.9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15.2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0.5
시장보기	전체	횟수	1.8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53.9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1.6
	맞벌이	횟수	2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55
가정경영	전체	횟수	1.4
		1회평균 소요 시간 (분)	32.7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0.8
	맞벌이	횟수	1.4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31.2
인터넷쇼핑	전체	횟수	1.4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41.5
		1주일 평균 소요 시간 (시간)	1.1
	맞벌이	횟수	1.5
		1회 평균 소요 시간 (분)	45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먼저, 위 통계표에 따라 나와 아내가 현재 하고 있는 가사분담 역할을 구분하고, 각 가사노동 수행빈도표에 따라 “1회 평균 소요시간”과 “횟수”를 곱하여 평균 가사시간을 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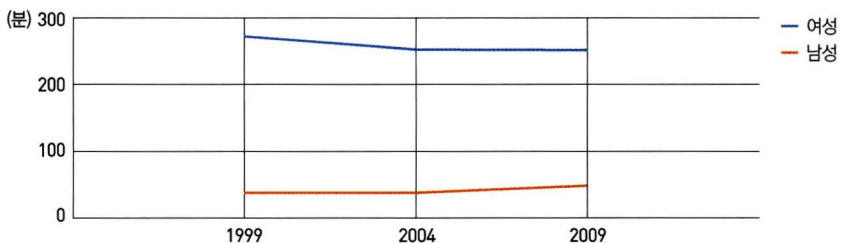
**역할분담 전**

구분	횟수		1회평균소요시간		각 역할분담시간 (1회평균소요시간×횟수)	
	나	아내			나	아내
음식물쓰레기	2.8	0	13.5분	810초	2,268	0
청소	3.8	3.8	2.1시간	7,560초	28,728	28,728
분리수거	1.9	1.9	30분	1,800초	3,420	3,420
시장	2	2	55분	3,300초	6,600	6,600
가정경영	1.4	1.4	31.2분	1,872초	2,620.8	2,620.8
인터넷쇼핑	0	1.5	45분	2,700초	0	4,050
다림질	1.8	0	25.9분	1,554초	2,797.2	0
세탁	0	3	38.7분	2,322초	0	6,966
세탁물낼기	0	3	20분	1,200초	0	3,600
식사	0	8.5	43.8분	2,628초	0	22,338
설거지	0	8.1	22.9분	1,374초	0	11,129.4
합계	13.7	33.2			46,435.0	89,452.2
비율					1	2

※ 각 역할에 따른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음

확인결과 1 : 2 정도로 아내가 나보다 2배 정도의 가사분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09년도 평균적인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비율이 1 : 5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 통계표 참고 남성 : 여성 = 46 : 247)와 비교하여 볼 때는 내가 가사분담 참여율은 09년대비 높은 편이었으나, 맞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 : 1의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좋아 다시 분담 조정하기로 하였다.

**성별 가사노동시간, 1999-2009**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1999			2004			2009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306	36	270	294	39	255	293	46	247
가정관리	238	25	213	224	26	198	224	32	192
가족보살피기	68	11	57	70	13	57	69	14	55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역할분담 후

구분	횟수		1회 평균소요시간		각 역할분담시간 (1회평균소요시간×횟수)	
	나	아내			나	아내
음식물쓰레기	2.8	0	13.5분	810초	2268	0
청소	3.8	3.8	2.1시간	7560초	28728	28728
분리수거	1.9	1.9	30분	1800초	3420	3420
시장	2	2	55분	3300초	6600	6600
가정경영	1.4	1.4	31.2분	1872초	2620.8	2620.8
인터넷쇼핑	0.5	1.0	45분	2700초	1350	2700
다림질	1.8	0	25.9분	1554초	2797.2	0
세탁	0	3	38.7분	2322초	0	6966
세탁물넣기	1.5	1.5	20분	1200초	1800	1800
식사준비	4.25	4.25	43.8분	2628초	11169	11169
설거지	4.05	4.05	22.9분	1374초	5564.7	5564.7
합계	24	22.9	329.1분		66,318.7	69,568.5
비율					1	1

나와 아내의 역할분담을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1:1, 그리고 인터넷쇼핑을 1:2로 조정한 결과 동등한 시간 수준으로 역할분담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다림질은 나의 분담으로, 세탁(손빨래 포함)은 아내의 분담으로 정하고, 표를 보더니 와이프는 “괜찮네?” 하고 지금까지 잘 실행하고 있다. (다만, 주말에는 공동부담으로 하기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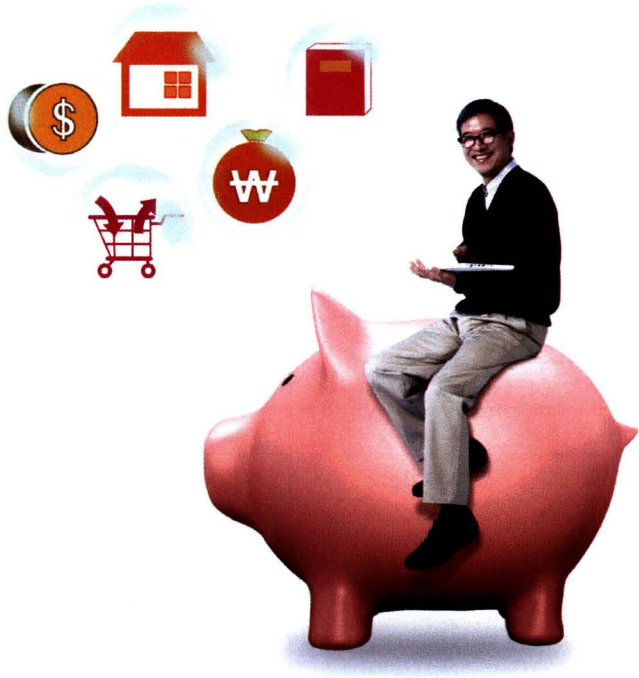
분담 조정결과		
구분	나	아내
음식물쓰레기	○	×
청소	공동분담	
분리수거	공동분담	
시장	공동분담	
가정경영	공동분담	
인터넷쇼핑	1	2
다림질	○	×
세탁	×	○
세탁물날기	공동분담	
식사준비	공동분담	
설거지	공동분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되기”,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인생을 살도록 해보자는 작은 목표로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적용해 보았다. 또한, 현재 결혼 후 가장 고민되는 가계소비지출, 향후 필요한 자녀양육비, 가사분담 등을 통계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풍토와 어울려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대한민국 맞벌이 가정들 힘냅시다!!

# 노후준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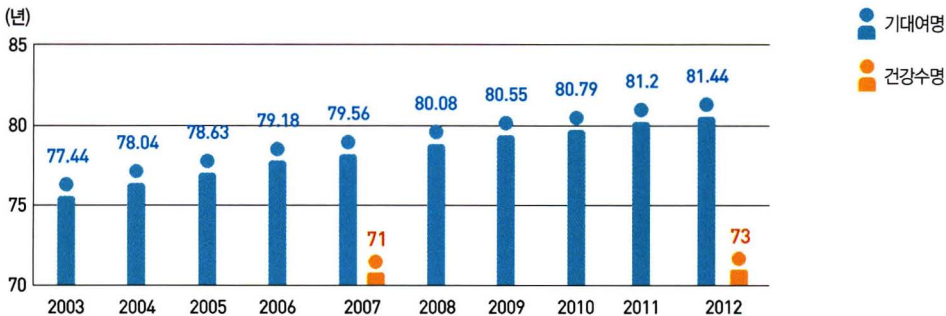
장려상 남재희



불혹(不惑), 나이 40을 이르는 말로 공자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 말했고, 중년이 시작되며, 오빠라는 호칭보다는 아저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운 시절이 내게도 다가왔다. 질풍노도의 청년기를 지나고 사회에 뛰어들어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지금의 나이에 이르렀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친구들, 선·후배 등 지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일, 직장, 가정, 건강 등 비슷한 고민들을 토로하곤 한다. 그런데 유독 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조용해지곤 한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민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일까?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기본적 상식 그리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두통의 원인이 되는 ‘노후준비’에 대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통계를 활용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나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가게 될까?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우리나라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를 보면 2011년 기준 평균수명(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 을 말함)은 81.2세, 2007년 기준 건강수명(건강수명은 전체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은 71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	2011(A)			2012(B)			증감(B-A)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세	81.2	77.6	84.5	81.4	77.9	84.6	0.2	0.3	0.2
20세	61.7	58.2	64.9	61.9	58.4	65.1	0.2	0.3	0.2
<b>40세</b>	42.4	<b>39.0</b>	45.4	42.5	<b>39.2</b>	45.5	0.2	0.2	0.1
60세	24.2	21.4	26.5	24.3	21.5	26.6	0.1	0.1	0.1
80세	9.2	7.6	9.9	9.2	7.7	9.9	0.0	0.0	-0.0

출처: 통계청, 생명표

성·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르면 남자를 기준으로 2012년 현재 40세인 나는 앞으로 39.2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만일 60세에 은퇴한다면 20년을, 65세에 은퇴한다면 약 15년의 삶을 준비해야 하여 또한 기대여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서 은퇴 후 약 20여년 정도를 기대여명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의 은퇴 이후 생활비용은?

기대수명에 대한 것을 알아봤다면 이제 비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 후 약 20여년의 시간동안 나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까? 세대별로 구분해 추측해야 하지만 나와 배우자만으로 2인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경우를 가정하고 산정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월 858,747원이며, 일 년에 10,304,964원의 비용이 든다.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최저생계비(3인가구)	939,314	972,866	1,026,603	1,081,186	1,110,919
최저생계비(1인가구)	418,309	435,921	463,047	490,845	504,344
<b>최저생계비(2인가구)</b>	<b>700,489</b>	<b>734,412</b>	<b>784,319</b>	<b>835,763</b>	<b>858,747</b>
최저생계비(4인가구)	1,170,422	1,205,535	1,265,848	1,326,609	1,363,091

출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계측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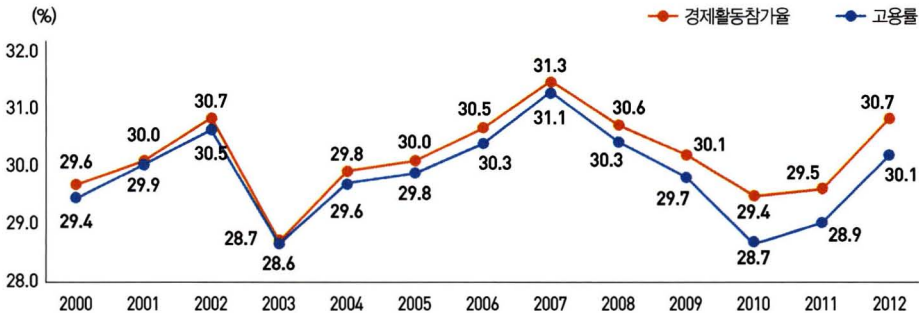
여기에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약 5,452,000명이고 노인의료비 지출현황은 13조 7,847억원으로 이를 65세 1인당 노인진료비로 나누어 보면 연간 약 250만원이 지출된다.

연도	전체 <sup>1)</sup>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전체의료비중 노인의료비 구성비
		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2009	394,296	120,391	39,871	35,552	44,968	30.5
2010	436,570	137,847	43,013	40,293	54,541	31.6

그렇다면 은퇴이후 노후 생계비는 일 년에 약 1,250만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 내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야 하지만 노인이라는 연령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의료비는 준비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를 다시 20년으로 산정해보면 은퇴이후 20여년의 기대여명 동안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이 준비해야할 최저생계비는 약 2억 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시점만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은 제외하고자 한다.

### 은퇴 이후 경제적 활동은?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라도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은퇴 이후 경제적 활동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점검에서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로 전년(29.5%)보다 1.2%p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 고령자는 41.6%로 여자 고령자보다 18.6%p 높았다. 2000년 이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3년 28.7%로 가장 낮았던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하락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자)에 따르면

2013년 고령층(55~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9%로 전년 59.0%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 급여를 100.0으로 했을 때, 2012년 현재 60세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수준은 77.7이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86.4, 여자는 53.1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던 60세이상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1994년 이후 10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남자 취업자의 경우는 1997년 이후 100.0이하로 떨어졌으며 2002년 이후 80%대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의 성별 월 급여수준(60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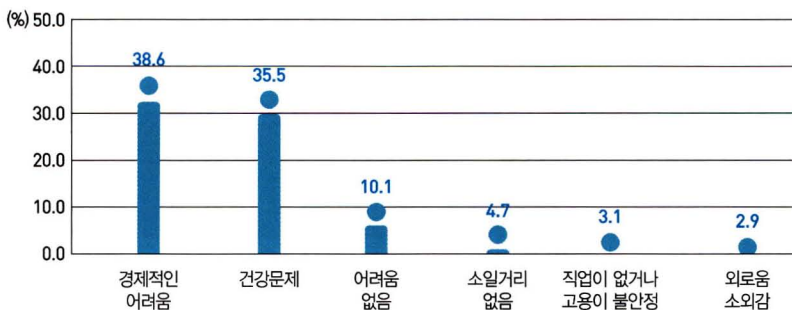
(단위: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여 = 100)

	1993	1994	1997	2002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0세이상	101.6	<b>98.7</b>	90.4	79.4	78.2	82.4	82.7	80.2	79.1	75.6	<b>77.7</b>
남자	113.3	109.2	<b>98.8</b>	85.2	83.5	87.4	88.7	86.4	84.9	82.3	<b>86.4</b>
여자	57.5	57.0	56.9	54.7	54.7	58.5	57.9	56.2	56.1	54.0	<b>53.1</b>

은퇴 이후 건강하고 일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은퇴 이전 수준의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노후생활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그 기회는 보다 높게 주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 노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은?

노후가 되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며 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현재 시점의 고령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38.6%)' 과 '건강문제(3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문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경제적인 문제만큼 건강문제 역시 은퇴 이후 삶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은퇴 이후 가능한 경제적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후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1년 기준으로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847.8명이 사망하였고, 다음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381.1명)', '심장질환 (361.2명)', '당뇨병(15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성별 사망원인을 보면 남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질환' '당뇨병'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폐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	암 (882.4)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b>암 (847.8)</b>	<b>뇌혈관질환 (381.1)</b>	<b>심장질환 (361.2)</b>	<b>당뇨병 (155.4)</b>	<b>폐렴 (143.2)</b>
남자	암 (1,275.9)	뇌혈관질환 (411.4)	심장질환 (360.3)	만성하기도질환 (180.7)	당뇨병 (175.3)
여자	암 (553.6)	심장질환 (361.7)	뇌혈관질환 (360.2)	당뇨병 (141.6)	폐렴 (125.8)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암 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도 노령에 가장 위협적인 질병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노후가 되어 고령화 될수록 상기 질환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충분한 대처를 늘 잊지 않고 준비해야겠다.

### 노후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생활 준비에 정확은 답은 없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분명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너무도 많은 방법들이 나열되어 제공된다. 그 가운데 내게 맞는 노후준비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현재 고령자들의 생활을 통해 그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노후준비방법으로는 유배우 고령자의 절반(50.9%)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무배우 고령자는 23.8%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령자의 주된 노후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 과 '예·적금' 으로 나타났다.

	준비하고 있음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sup>1)</sup>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고령자 (65세 이상)	40.1	31.8	11.1	10.8	27.5	13.6	5.2	59.9	4.3	4.1	54.8	36.8
유배우 고령자	<b>50.9</b>	<b>30.1</b>	12.0	10.5	<b>27.2</b>	14.6	5.6	49.1	6.6	6.5	58.7	28.2
남자	<b>58.0</b>	<b>34.4</b>	11.5	9.4	<b>24.3</b>	14.7	5.7	42.0	6.5	7.7	55.8	30.1
여자	<b>40.5</b>	<b>21.2</b>	12.9	12.9	<b>33.3</b>	14.4	5.3	59.5	6.6	5.3	61.8	26.3
무배우 고령자	<b>23.8</b>	<b>37.3</b>	8.4	11.6	<b>28.4</b>	10.1	4.2	76.2	2.2	1.7	51.0	45.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현재 고령자들의 생활을 기준으로 미래의 은퇴 이후 생활 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거기에 공·사적 연금 그리고 예금 및 적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고령자가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여행, 사교, 종교 등의 순으로 건강과 경제적 여유만 갖춘다면 충분한 사회적 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계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종교 활동	휴식	사교 관련일	기타 <sup>1)</sup>
2011년	100.0	43.4	9.5	8.1	4.5	7.1	4.1	4.4	4.8	14.0
2013년	100.0	46.9	9.0	8.4	4.3	6.3	3.5	3.8	5.2	12.6
60세 이상	100.0	44.6	3.5	3.0	2.6	1.5	7.7	6.8	10.9	19.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40세를 인생의 제 2막이 열리는 시기라고들 한다. 노후준비를 생각하면서 알아본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서 걱정부터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저생계비, 의료비,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들, 미래에 대한 자금 준비, 노후의 여가생활 등 노후준비는 장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현재시점의 나를 돌아보는 새로운 다짐과 계기로 삼고자 할 뿐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겨우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이라는 긍정적 사고로 지금부터 노후에 대한 조그마한 준비와 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통계청의 데이터를 통해 나는 그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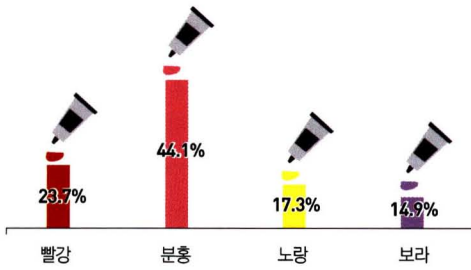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내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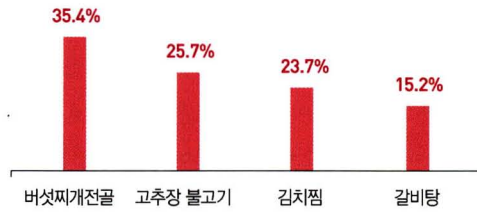


장려상 문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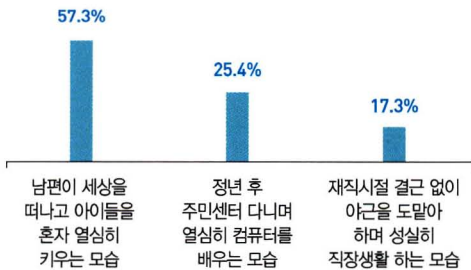
문여사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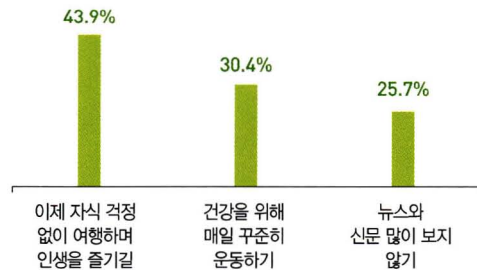
문여사 만든 요리 중 Best



문여사가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을 때?



환갑을 맞이한 문여사에게 바라는 점?



얼마 전 환갑 생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 오붓하게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과 찬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잊었던 지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들과 딸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감사패와 함께 커다란 판을 건네어 나를 놀라게 했는데, 「통계로 보는 문 여사의 인생사 60년!」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판에는 미리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설문하여 만든 재미난 질문에 대한 통계 결과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찬찬히 통계의 내용을 읽어보니 60년 세월 속에서 겪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모르던 나에 대한 소소한 것들에 알 수 있었는데 가령, 빨간색이 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붉은 계통의 옷들을 즐겨 입었는데 앞으로 옷을 구매할 때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제일 대단하다고 느꼈을 때라는 질문에 대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장이 되어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드라마나 예능을 전혀 보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채널만 보고 신문을 즐겨 읽는 나에게 이제는 그만 진지해지라는 통계치를 보니 남들 눈에는 내가 많이 지루해 보였나 싶어 웃음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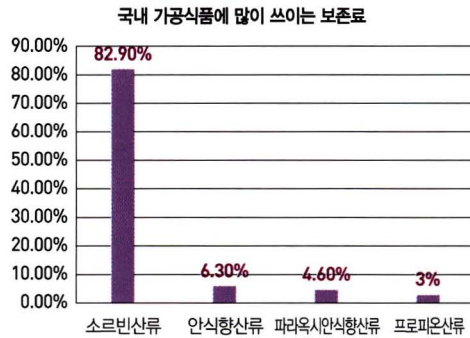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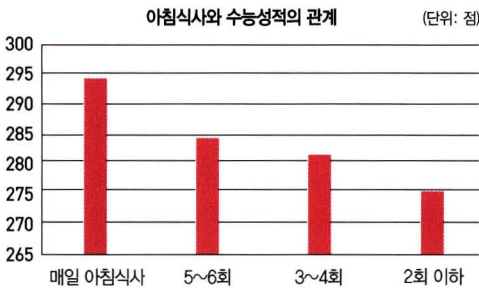
나는 신문과 뉴스 마니아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할 줄 모르던 때는 TV를 챙겨보며 뉴스를 시청하고 직장에서 보던 신문들을 집으로 가져와 흥미로운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모아두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다. 처음에는 아이들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 기사들을 잘라두었는데 신문을 읽다보니 다양한 수치를 그림과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통계들이 제일 먼저 시선을 끌어 눈여겨보다 나중에는 한 번 보고 버리기 아까운 통계와 그에 대한 기사들이 스크랩 단골손님이 되었다. 한참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푼두푼 돈을 모을 때는 전국 집값 하락률과 전세가 상승률에 대한 통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아이들이 대학진학 무렵에는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통계나 유망한 직업과 만족도가 높은 직업에 대한 통계들을 꼼꼼히 오려두었다. 나이가 들고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품이나 운동 등 웰빙생활에 대한 통계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삼아 잘라 파일에 꽂아두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크랩한 통계 기사들은 나를 쓸모있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스크랩 책을 꽂아두었는데 아이들은 좀 긴 시간 화장실에 머물 때면 나의 스크랩 책을 넘기며 지루함을 모면하고 글자만 나열된 지루한 사실이나 지문보다 눈에 쏙쏙 들어오는 통계에 대한 기사들이 재미있다고 했다. 덕분에 과외 없이도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이 요구되는 사회탐구 영역에 성적이 많이 올랐고, 논술 준비할 때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그간 보아온 통계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요긴하게 사용하여 두 아이 모두 국립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내 짐을 덜어주었다.

정년퇴직 후 나는 그 동안 꼭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와 인터넷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컴퓨터, 무엇보다도 클릭만 해도 많은 읽을거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인터넷은 나의 새로운 즐길거리가 되었다. 우연히 알게 된 「통계로 소통하는 통하는 세상」이라는 통계청 블로그는 나의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되어 자주 들르며 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사실 내게는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취업 문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7년이 넘게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나의 정년퇴직도 코앞으로 다가와 아들아이와 나 사이에 좋지 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공부 잘 하던 모범생 아들이 백수로 지낸다는 사실이 나를 몹시도 괴롭혔다. 나는 점점 아들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래라저래라 간섭이 늘고 잔소리가 많아지니 아들은 아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렇게 제 방에서 지낸 시간이 오래 되면서 아들은 100kg이 넘는 고도비만이 되어 내 속을 엄청나게 썩였다. 나와 밥상도 마주

하지 않던 아이들은 라면이나 과자로만 끼니를 때우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이었다. 밥을 먹어라! 자기 관리 좀 잘해 보라! 등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갈등의 실마리를 풀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두통에 시달렸다. 그러던 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작은 종이를 하나씩 놓아주었다. 통계청 블로그에서 본 「우리 생활 속 식품첨가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본 국내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보존료에 대한 통계표나 아침식사와 수능성적과의 관계, 키 몸무게별 한국인 성인남녀의 섭취기준에 대한 통계표 등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통계표를 출력하여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놓아두었다.

통계청 블로그 '아침밥 거르지 맙시다' 中 ('10. 8. 10)

통계청 블로그 '식품첨가물 속 오해와 진실' 中 ('12. 4. 23)



출처: 농촌진흥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블로그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中 ('10.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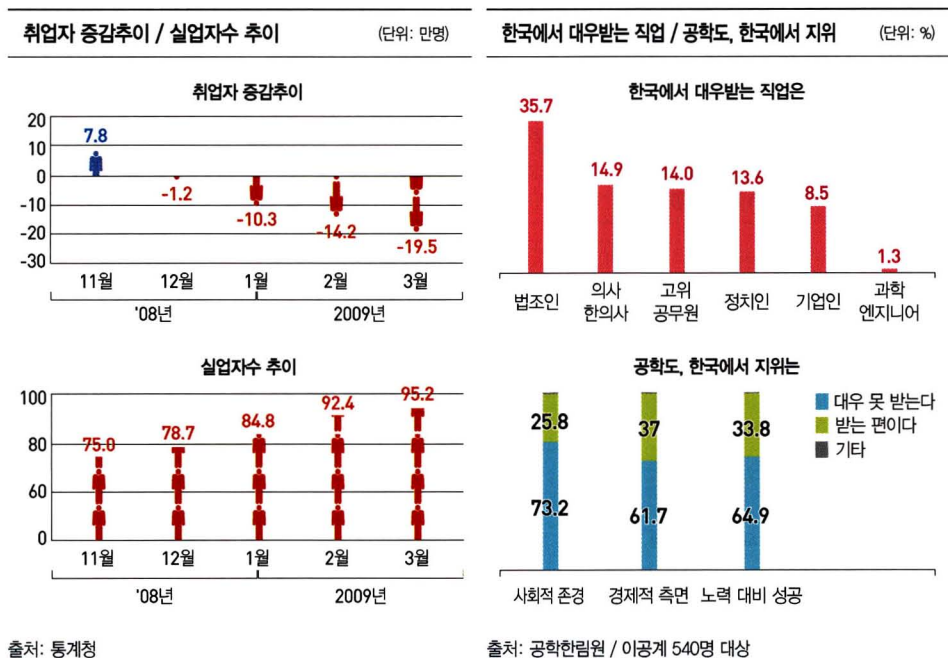
(단위: Cal)

성별	키	체중	저활동적		활동적		
			에너지 (Cal)	에너지 (Cal)	에너지 (Cal)	에너지 (Cal)	
남자	키 180cm	59.9kg	2513	2782	키 160cm	1944	2185
		81kg	2884	3200		2118	2385
	키 170cm	53.5kg	2338	2586	키 150cm	1803	2025
		72.2kg	2670	2959		1956	2198
	키 160cm	47.4kg	1944	2185	키 140cm	1403	1625
		64.0kg	2118	2385		1556	1798

출처: 한국영양학회

그렇게 오랜 시간 아들의 방에 통계쪽지를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은 운동하기 위해 제방을 나왔다. 100kg가 넘는 거구가 된 아들이 과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은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시간이상 걷기운동을 하며 한 달쯤 지나자 30kg이나 체중감량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사실 아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취업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보다는 엄마의 턱없는 기대감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 역시 통계청의 블로그 기사들을 보면서였다. 통계청 블로그 기사를 읽으며

잘나가는 이웃 자녀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고,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자수가 느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꼭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는 엄마의 기대가 아들에게 부담이었을 거라 짐작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은 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이다. 아들이 대학진학을 할 때 전공을 선택한 기준은 아들의 적성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길 바라는 마음에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들이 원하는 일보다는 대기업만 선호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16일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학도들의 위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며 나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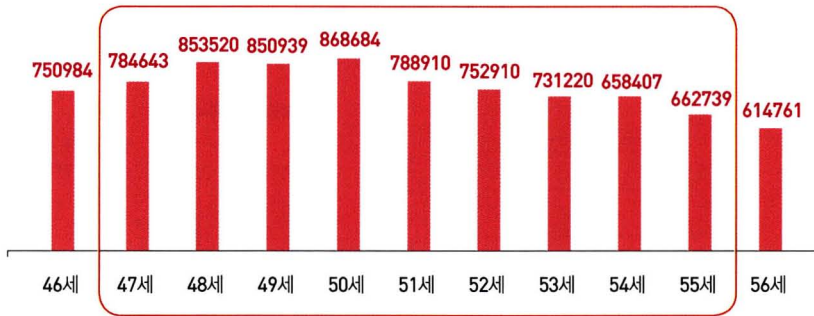
아들은 지금 자신의 적성을 살려 제빵사가 되어 늦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낸다. 아들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자 나는 또 다른 고민으로 불면증이 생겼다. 코앞에 닥친 정년퇴직 후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큰 걱정이었다. 나야 중초부까지 모시고 살았지만 요즘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막막한 심정이었다. 통계청 블로그의 2011년 10월 24일 베이비부머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비롯한 기사들을 읽으며 걱정만 하지 말고 나의 은퇴 후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기로 하였다. 일단 자식들의 취업으로 가구 수가 줄어 집을 줄여서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노후자금이 넉넉지 않으므로 만약을 위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가만하여 경험이 부족한 창업보다는 농사를 지어 필요한 식량구입비를 줄이고 잉여량은 판매하여 생활비에 보태도록 하였다.

이에 집을 재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동생과 함께 논을 사서 벼농사와 콩농사를 함께 시작했다. 비료와 농약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유기농 재배로 우리 가족들과 친척과 나누고 밥맛 좋기로 소문도 나 남은 양은 주변에 판매도 하니 통계로 결정한 나의 은퇴 후 삶도 대만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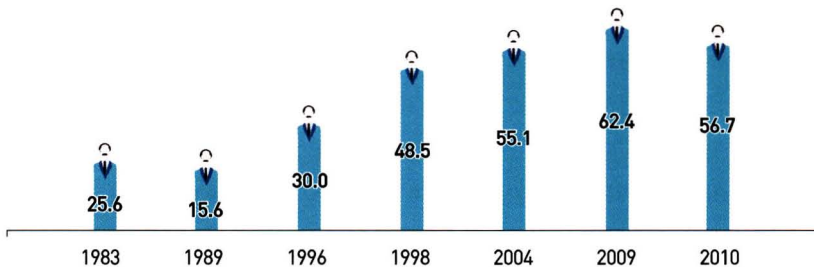
## 문여사의 은퇴계획

### <1단계>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태를 알고 심리적 안정 찾기

한국의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부머 세대 - 통계청



50-54세 남성10만명당 자살율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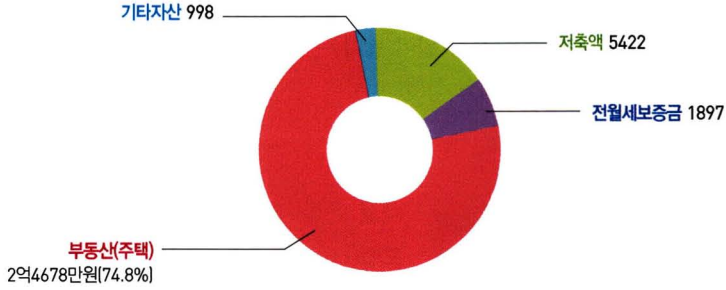


통계청 자료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 중 14.4%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 생활고에 시달리는 5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니 노후에 대한 걱정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위안 삼는다.

### <2단계> 베이비부머 자산비율 분석을 통한 주거문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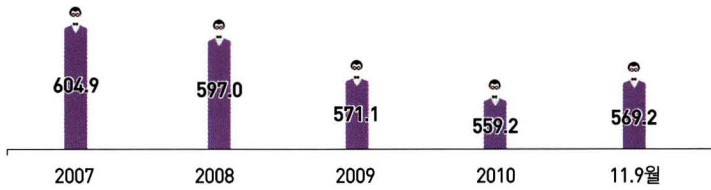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집장만을 위한 대출금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이 적고 고정수입이 줄어들어 다시 집을 팔아야 하는 위기가 오기도 한다는 기사를 보며 나는 자식들의 독립으로 집값이 비싼 구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신도시의 작은 평형으로 이사하여 집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과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베이비부머 평균 자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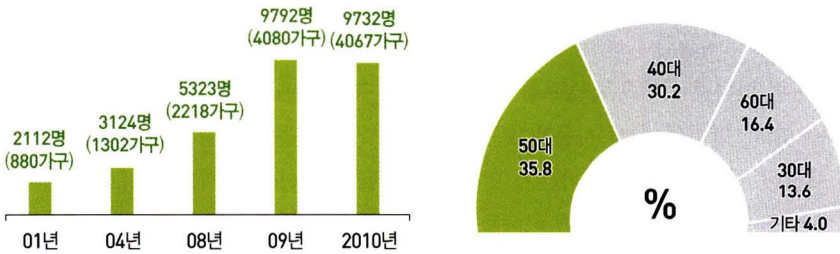


<3단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분석을 통한 나의 은퇴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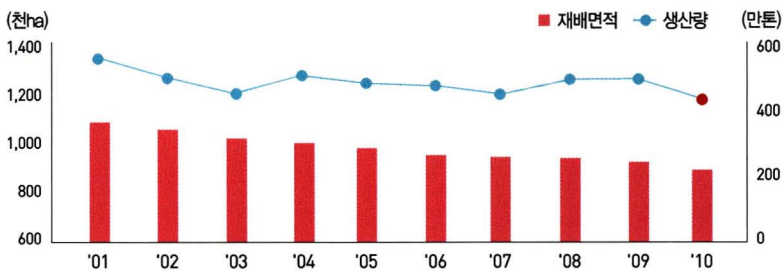
자영업 종사자 추이 - 통계청



귀농인구 증가 추이 - 농림수산식품부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 창업을 하거나 귀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0년 11월 23일 통계청 블로그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생각해 보니 내가 먹을 식량을 직접 자급할 수 있도록 창업보다는 벼농사를 짓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의 경우 망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결과 역시 통계청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어 내 인생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차분한 삶을 선택!



국가통계포털,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사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많았는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 '우리 집 물가 체험하기' 는 정부발표 물가와 우리가 체험하는 물가수준이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 집 소득과 비슷한 항목별 평균 지출비용과 물가 구성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어디에 많이 쓰고 지출하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실제로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통신비와 외식비 지출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매달 გადა 지출항목을 찾아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과 뉴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통계로 보는 문 여사의 인생사 60년!」을 선물로 줄 만큼 나는 통계를 좋아한다.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남편이 알아서 했었는데 사별 후 가장이 되고 나니 소심한 A형인 내가 무언가를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을 옮기거나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살림만 하던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책임지려니 어렵기만 했고 요즘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을 수 없던 때라 통계는 의사결정하기 위해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다. 엄마의 통계 사용을 오랫동안 보아오던 아들은 제빵사가 되고 난 후 자신이 만든 빵 중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덜 나가는지 일일 통계표를 작성하여 고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초등학교 교사인 사위 역시 학년을 마칠 무렵 아이들에게 좋았던 교육 프로그램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설문조사로 다음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자료로 활용한다. 인생이 긴 여정 같지만 60년을 살아보니 순간인 듯 짧기만 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결정하기 힘든 순간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통계였다.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어도 통계를 근거로 내린 결정 덕분에 커다란 실패로 좌절을 겪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 다행이었다. 환갑이 된 나는 은퇴 후 내 삶에 대한 인생설계 역시 통계를 근거로 계획했고 지금은 보람되고 알차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통계는 60년의 동안 내 삶을 함께 해 온 고마운 친구다!

# 2014년 되었던 나, 앞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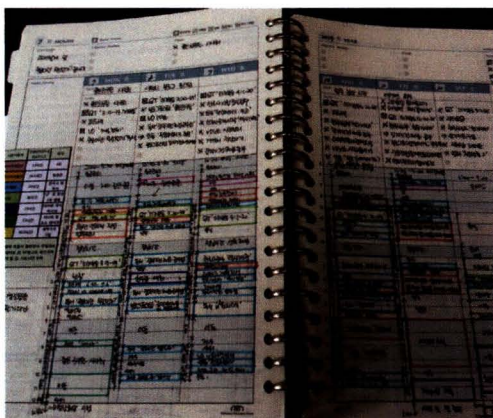


장려상 박동명

숫자를 사랑하는 남자, 박동명. 그래서 '기록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나. 그 기록의 면면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에는 2014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 보고, 그걸 바탕으로 남은 2014년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돌아볼 주제는 시간과 재정이다. 흔히 가계부는 많이 작성하지만, 시간기록은 잘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도 기록해오고 있다. 30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꾸준히 기록해 왔다. 또한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출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한 번 지켜보자.

## 시간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시간이다. 2013년부터 시간기록부를 주간단위로 쓰고 있다(<그림1>).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 '그거 해놓고 어디다 쓰냐', '펜을



<그림 1> 비인더를 이용한 주간계획표

많이 쓰니 펜 값이 많이 나가겠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돌아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의지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보낸 반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켜 보고,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1) 6가지 영역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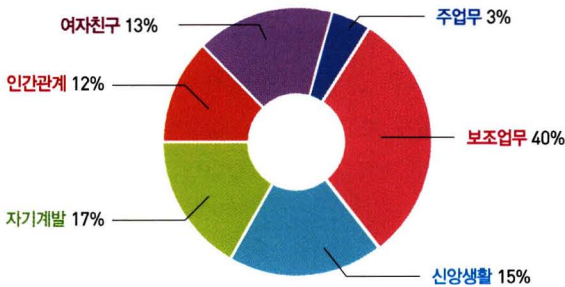
우선 여섯 가지 영역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했다.<sup>1)</sup>

- ① 부가가치 업무 - 나의 꿈과 관련된 활동을 한 시간을 의미한다.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쓰기, 상상하기 등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② 비부가가치 업무 -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부가 가치를 일으킬만한 것은 아니다. 주로 회사업무 중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 잡다한 업무들이다.
- ③ 자기계발 - 독서, 운동과 같이 날 계발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의미한다.
- ④ 신앙- 신앙과 관련된 활동시간을 의미한다.
- ⑤ 인간관계 - 인간관계와 관련된 활동시간을 의미한다.
- ⑥ 여자친구 - 여자친구와 데이트한 시간들을 의미한다.

## 2) 2014년 나의 활동 시간은?

올해(2014년 1월부터 7월) 내가 이 6가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보자!(<그림 2>)

<그림 2> 6가지 영역의 투자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부분은 보조업무(비부가가치 업무, 40%, 844.2시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회사생활이 많다 보니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자기계발 17%, 350.2시간로 나타났다. 주로 독서와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인 것 같다(참고로 올 해 읽은 책은 총 22권). 세 번째는 신앙생활(15%,

322.1시간)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회에서 청년부 부회장을 역임하다 보니, 교회관련 행사, 회의 등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한 결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여자친구(13%, 281.5시간)로 나타났다. 작년 11월에 만난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12%, 245.7시간)로 나타났다. 평소 인간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여섯 번째는 주업무(부가가치업무, 3%, 55.7h)로 나타났다. 보통 내가 주업무를 하는 시간은 새벽시간인데, 새벽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주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업무가 가장 중요한 시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3%밖에 쓰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표 1>).

1 성공을 바인딩하라, 저자 강규형, 2013년에 이 책을 읽고 적용하기 시작했음.

〈표 1〉 2014년 1월~7월까지 활동 시간

(단위: 시간)

	주업무	보조업무	신앙생활	자기계발	인간관계	여자친구
합계	55.7(3%)	844.2(40%)	322.1(15%)	350.2(17%)	245.7(12%)	281.5(13%)

### 3) 월별로 알아본 6가지 시간 영역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적인 시간활용 내용을 봤다면 월 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별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다(〈표 2〉).

〈표 2〉 월별 6가지 시간 영역

(단위: 시간)

	주업무	보조업무	신앙생활	자기계발	인간관계	여자친구	합계
1월	11.5(3.7%)	114.5(36.9%)	<b>90.0(29.0%)</b>	36.0(11.6%)	26.0(8.4%)	32.0(10.3%)	310(12.9%)
2월	4.0(1.5%)	99.0(37.6%)	30.5(11.6%)	38.0(14.4%)	<b>51.0(19.4%)</b>	40.5(15.4%)	<b>263(11.0%)</b>
3월	15.5(4.7%)	132.0(40.1%)	43.0(13.1%)	48.5(13.1%)	55.5(16.8%)	35.0(10.6%)	<b>329.5(13.7%)</b>
4월	6.5(2.0%)	80.5(25.0%)	66.0(20.5%)	<b>79.0(20.5%)</b>	36.5(11.3%)	<b>54.0(16.7%)</b>	322.5(13.4%)
5월	1.1(0.3%)	<b>282.8(79.9%)</b>	15.0(4.2%)	3.9(4.2%)	16.7(4.7%)	34.4(9.7%)	353.9(14.7%)
6월	8.6(3.6%)	66.4(28.2%)	25.6(10.9%)	57.9(10.9%)	23.6(10.0%)	<b>53.6(22.7%)</b>	<b>235.7(9.8%)</b>
7월	8.5(3.0%)	69.0(24.2%)	52.0(18.2%)	87.0(18.2%)	36.5(12.8%)	32.0(11.2%)	285(11.9%)
평균	8.0(2.7%)	<b>120.6(40.2%)</b>	46.0(15.3%)	50.0(15.3%)	35.1(11.7%)	40.2(13.4%)	299.9(12.5%)

① 1월 - '연초는 교회 수련회와 함께', 신앙생활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초반에 교회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겨울 수련회 준비하느라 매일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② 2월 - '2월은 짧다', 전체적으로 활용한 시간 자체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2월이 28일밖에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3월 - '3월 무엇인가를 끝낼 때는 최선을!', 3월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달이었던 것 같다. 이 시기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수인계를 하던 달이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또한 인간관계 시간이 55.5시간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 동료들과 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④ 4월 - '백수의 삶', 4월은 회사를 다니지 않던 기간이라 보조업무 시간이 별로 없었고, 보조업무할 시간에 도서관이나 집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여유로워져 여자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다.

⑤ 5월 - '5월의 연인', '5월의 신부', 이런 화려한 수식어는 가라! 내게 5월은 지옥이었다! 5월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통신센터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한 번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이 상당했다. 보조업무 시간이 282.8시간으로 어마어마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나머지 영역에 시간을 활용한 것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한 것으로 보인다(ㅠㅠ).

⑥ 6월 - '다시 백수의 삶으로', 백수가 되면 시간패턴이 딱 보인다. 바로 보조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에 자기계발 시간이 많아진다. 이때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남는 시간엔 독서와 운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여자친구는 꾸준히 만났다. 6월은 5월에 힘들게 일한 여파가 있어서인지 월별 활동시간 중 가장 낮은 235.7시간만 활동을 했다. 나머지 시간엔 잠을 더 자거나 침대위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7월 - '새로운 직장으로', 소위 말하는 공기업에 입사했다. 초반에 할 일이 많지 않아서 보조업무 시간에 자기계발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다. 그러나 회사에 취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부족해졌었던 것 같다.

#### 4) 수면시간은 어떻게?

활동할 때의 시간만 적어 놓은 것이 6가지 영역이다. 그런데 난 또 하나 관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면시간이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시간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면시간은 항상 존재하고, 그 수면시간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잠이 많은 편이고, 잠 잘 때가 가장 행복한 놈이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책<sup>2)</sup>도 많이 읽는 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표 3〉)

	월 별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1월	246.5(16.2%)	8.0
2월	229.5(15.1%)	8.2
3월	238.0(15.6%)	7.7
4월	204.5(13.4%)	6.8
5월	194.4(12.8%)	6.3
6월	225.0(14.8%)	7.5
7월	183.0(12.0%)	5.9
합계	1520.9(100.0%)	7.2

총 수면시간을 한 달 날짜로 나눠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알아봤다. 수면시간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7월 공기업 입사 후 부터는 하루에 5.9시간 정도만 자고 있다. 회사 위치가 출퇴근이 1.5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기상시간을 5시 반에 해서 여유있게 출근하는 편이라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7월까지의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으로 내가 가장 효율적인 수면시간이라고 생각하는 7시간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수면시간이 1, 2, 3위로 가장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때 다니고 있던 직장은 월,수,금요일만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그것도 9시 반까지 출퇴근 시간이 도보로 10분 밖에 되지 않아 늦잠 자는 횟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부터 7월까지의 수면시간은 비교적 적다.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2 잠자기 30분 전 공부법, 아침형 인간, 새벽 나라에 사는 거인 등

### 5) 수면시간을 줄이면 확실히 나머지 다른 활동시간이 많아질까?

수면시간을 줄여 다른 활동시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면시간과 나머지 활동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수면시간을 독립변수, 활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수면시간과 활동시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추정된 F값이 0.5로 유의확률 0.05보다 크게 나와 수면시간은 활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S.E	β		
활동시간	(상수)	515.91	250.60		2.06	.09
	수면시간	-0.83	1.148	.106	-0.73	.50

R제곱=.09, F=0.53(p).05)

### 6) 낭비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활동하는 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낭비되고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낭비되는 시간을 찾아내서 그 시간을 활동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낭비되는 시간을 알아보자(<표 5>).

<표 5> 낭비시간

(단위: 시간)

	월 별 낭비시간	하루 평균 낭비시간
1월	187.5	6.0
2월	179.5	6.4
3월	176.5	5.7
4월	193	6.4
5월	171.7	5.5
6월	259.4	8.6
7월	252	8.1
계	1419.6	6.7

정말 놀라운 수치다(ㄷㄷ). 충격적이다.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가 낭비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나, 낭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약 하루의 1/4 정도의 시간이 낭비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낭비되는 시간의 대부분은 이동시간이다. 이동시간을 특별히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대부분 버려진다. 걷는 시간에도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꿈이

실현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sup>3)</sup>, 영어단어 외우기 등으로 활용하면 낭비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낭비되는 활동으로 스마트폰 게임, 웹 서핑과 같이 디지털 매체<sup>4)</sup>에 노출된 시간이 너무 많다.

3 꿈꾸는 다락방, 저자 이지성-꿈이 실현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책에서 감명 받아 실천 중  
4 디지털 치매, 저자 만프레드 슈피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저자 니콜라스 카-디지털 매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책

이런 시간들을 독서나 명상, 또는 차라리 휴식하는 것이 다음 활동시간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

## 7) 총평

### ① 주업무시간의 부족

주업무시간은 내 인생의 꿈과 사명을 위해 꾸준히 지켜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8시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고 있었다. 1만 시간의 법칙<sup>5)</sup>에 따르면 어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만 시간을 한 분야를 위해 보내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를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하기로 작정하고 올해 초부터 시작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요즘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있고 이동시간이 1.5시간 정도니 이 시간을 활용해 내 꿈에 관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눈 여겨봐야 할 7월

한동안 계속 증가하게 될 7월의 시간활용 패턴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은 반년은 7월과 비슷한 시간활용 패턴이 이어지게 될 텐데, 앞으로 보조업무시간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기계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이동시간 활용하기’를 잘 실행에 옮겨 부족해진 시간들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

### ③ 낭비되는 시간 활용하기

낭비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6.7시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시간들 중 3시간을 나의 꿈을 위해 쓰고 나머지 3.7시간 정도는 휴식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일에 사용한다면 꿈도 성취할 수 있고 생활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재정부분이다. 2013년부터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있다. 가계부는 손으로 쓰게 되면 누락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sup>6)</sup>은 ‘통계’ 부분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 1) 연간 수입 및 지출

2014년 7월 월급까지 계산한 결과 11,157,500원의 수입이 있었다. 월급은 회사를 다닐 때 받은 돈을 말하고 수당은 지옥의 날을 버티며 받은 노가다 수당이다. 기타에는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금과 아이패드를 팔아서 얻은 돈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3).

5 아웃라이어, 저자 말콤 글래드웰-성공한 사람들은 한 분야에 1만 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법칙

6 편한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1.99%에 구입함



(그림 3) 2014년 수입내역



(그림 4) 2014년 지출내역

2014년 8월 현재까지 지출된 돈을 계산한 결과 5,431,600원의 지출이 있었다(〈그림 4〉). 순위대로 보면 영광의 첫 번째 항목은 데이트(14%, 791,700원)로 나타났다. 주로 만나서 식사, 영화관람, 커피숍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월에 생일 선물로 막대한(?)양의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자기계발(14%, 782,270원)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로는 헬스장 등록권, 대부분이 도서, 프린터, 아이패드2 등이 차지했다. 꼭 지출해야 할 내역만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계발에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 번째는 현금(13%, 759,360원)으로 나타났다. 현금은 십일조를 내기 시작해서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식사(12%, 704,360원)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먹는 식사의 양이 상당했고, 은근히 간식으로 많은 돈이 지출됐다. 다섯 번째는 통신비(9%, 510,180원)로 나타났다. LTE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많은 돈이 나가기 시작했다. 지출을 꼭 줄여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는 교통비(8%, 462,390원)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고정비로 나가기 때문에 딱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통비 지원해주는 신용카드로 바꿔서 쓰고 있다. 일곱 번째는 사회생활(4%, 258,900원)로 나타났다. 주로 여섯가지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사용된 돈으로 거의 식사로 들어갔으나, 인간관계를 위해 식사를 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 부분의 지출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인간관계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는 나눔(3%, 210,000원)으로 나타났다. 나눔은 NGO 단체에 1:1 나눔을 하고 있으며 매달 3만원의 돈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평소 수입의 10%는 나눔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아홉 번째는 경조사(3%, 205,62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경조사비가 상당히 적다. 2013년에는 연지출 항목 1위가 경조사(17%, 1,958,960원)였다. 경조사가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6,325,900원으로 약 632만원 정도를 수입에 비해 절약하였다. 남은 돈은 전부 어머니께 고스란히 드렸다.

## 2) 월간 수입 및 지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간 수입 및 지출 상황을 보았다(〈표 6〉).

	수입	지출
1월	1,210,000원	862,520원
2월	1,650,000원	946,110원
3월	1,090,000원	778,800원
4월	1,550,000원	515,970원
5월	2,450,000원	519,630원
6월	513,000원	672,050원
7월	2,666,000원	734,630원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던 것은 7월로 직장을 옮긴 후 받은 월급 때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에 지옥의 노가다를 통해 얻은 245만원이 두 번째로 높은 수입을 올린 달이었다. 반면 지출은 오히려 돈을 못 벌던 1월, 2월에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월, 2월, 3월에 다니고 있던 직장이 이동시간이 많았고 회사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닌 이동이 잦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낭비하는 돈이 많았던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6월은 수입이 가장 적은 달이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오히려 지출이 수입보다 높았던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변동 폭이 컸으나 지출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정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3) 총평

2013년에 비해 지출대비 수입이 상당히 많아졌다. 아직 7월임에도 불구하고 625만원 정도 차액을 만들었다. 수입 부분에서는 지옥의 5월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월급이 많아진 것이 의미있게 작용한 것 같다. 지출 부분에서는 경조사비를 작년대비 1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 크다. 수입과 지출의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이 전체 수입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비율을 35%~40% 정도로 유지시키는게 좋아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지출내역을 개선해 보자면, 밖에서 먹는 식사(12%, 704,360원)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식을 챙겨 다니거나, 최대한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비(9%, 510,180원)도 줄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LTE 요금제를 75,000원 요금제를 쓰던 것에서 현재 47,500원 요금제로 줄여서 한 달에 3만원 정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담이지만, LTE폰을 구입해서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LTE 요금제를 1.5기가 짜리를 선택해야 되는 통신비 현실이 야속하다. 통신사 측에서 통신비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LTE를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에 약 10만원의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 후기

이렇게 7월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보니 상당히 의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 특히 평소엔 신경쓰지 않았던 자투리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 수면시간을 줄여보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데, 수면시간을 1~2시간 줄이는 것 보다 낭비되고 있는 6,7시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다. 이제부터 깨어있는 시간 자체만 잘 활용한다면 수면시간은 편안하게 가져도 될 것 같다.

2014년은 많은 일이 있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평택에서 노가다도 뛰었으며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어 일하게 되었다.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한 2014년, 더욱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점에 이렇게 통계적 수치로 한 해를 돌아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함이 많았고, 두려워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기 보다 하루하루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살아가는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난 앞으로도 이렇게 내 삶을 기록할 것이고 10년 뒤에 이 기록이 쌓였을 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숫자가 주는 교훈을 내 삶에 보완시켜 꿈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사람이 되겠다.



# 통계가 열어준 시야

장려상 오철환



**‘통계는 흐린 시야를 열어주는 안경이다.’**

2.0의 시력을 지니고도 앞이 보이지 않아 갈팡질팡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남들에겐 평범한 소시민으로 기억될지라도, 내겐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 그런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공간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도시, 더 작은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셨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 성실히 일해 모은 돈으로 다른 것도 아닌 책방을 여시고 꿈을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책벌레라 부르셨다. 책에만 빠져 살면 가난해진다고 해도, 아버지는 책을 팔아서 부자가 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으셨다. 배가 부르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데, 가난한 작가가 힘겹게 쓴 책을 팔면서 좀 가난하면 어떠냐며 허허 웃으셨다.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다. 그때 어머니 편을 들면서 서점 대신 다른 가게를 하시라고 설득했다면 하는 가정을 아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는가. 그냥 빛 없이 밤 굶지 않고 살면 족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눈앞이 어질해지게 된 것은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서점이 가난해도 북적였다면, 아들이 물려받은 지금은 가난만 더 심해진 상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도시 외곽에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니 온라인서점이 생긴 90년대 후반 이후로 동네서점의 입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역의 대형서점도 몇 년 전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서점도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서점 대신 북카페가 인기라며 조언을 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학업도 포기하고 자원입대를 했던 형편이라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남기신 역사를 쉽게 버릴 마음도 들지 않았다. 하루 손님이 열 손가락에 들 정도라도,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도 아버지가 떠나시자마자 서점을 정리할 순 없는 일이다. 설마 굶어죽겠냐는 농담을 입에 달고 서점 주인으로 산 지 3개월 여 자영업자들이 필수로 찾아본다는 통계자료를 그제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집작은 했지만 독서인구조사를 눈으로 확인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종이책 소비는 점점 떨어지고 서점을 찾는 횟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물론 책과 음악, 팬시 제품 등을 한 곳에서 쇼핑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대형서점은 인기가 있겠으나, 오로지 책만 파는 동네 책방은 찾지 않는다. 인근에 있는 대기업 체인 마트 내부에도 서점이 있는데 자료를 더 살피니 마트에서 아이와 장을 보고 겸사겸사 그곳에서 책도 사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 듯했다.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만들어 젊은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보려고 막연하게 고민했던 시간이 허망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통계결과가 보였다. 종이책을 사고 서점을 찾는 인구가 줄어든 40대 이하와 달리, 장년층 특히 노년층은 서점을 찾는 횟수가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듯도 했다. 전 연령대 중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층 역시 노인 분들이고 문화생활로 여가를 즐기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자책과 복합멀티플레이스가 스마트 세상에 빠르게 적응한 세대들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인구통계를 찾아보았다.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노인인구도 비슷하게 늘고 있었다. 책을 읽으며 천천히 여가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노년층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분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게 책을 고르고 읽을 공간은 어디일까. 인근 지리를 꼼꼼 훑어봐도 떠오르는 곳이 별로 없었다. 어차피 책을 팔아 부자가 될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책을 무작정 바라보고 있는 것도 못 할 짓이다. 손님과 책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좋은 책을 추천도 하고 책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하고, ‘또 오십시요’ 라고 허리 굽혀 인사하고도 싶다.

통계자료를 눈으로 훑듯이 보고 있자니 답이 나오는 것 같았다. 동네 책방이 모셔야 할 손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장년층과 어르신 분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서점. 그렇게 되려면 주 고객층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 장르를 안내하는 뜻말을 보다 크게 만들고 곳곳에 의자와 돋보기안경을 놓아두었다. 베스트셀러 리스트도 연령대에 따라 결과가 다른 법.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인기 있는 책들 위주로 베스트셀러와 추천서를 골라 진열대를 꾸몄다. 작지만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주말마다 멋진 목소리의 어르신들이 구연동화를 해주시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책을 고르시는 어르신들의 등을 가만히 보다 문득 문득 아버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책벌레라는 호칭이 정말 좋다고 웃으시던 아버지. 벌레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라 벌레가 하는 만큼 제 몫을 다 하고 사는 인간이고 싶다는 말씀이 귓가를 울린다.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책방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좋아서, 아버지처럼 세상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서, 가만히 웃어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더없이 환하다. 가장 좋은 안경을 선물 받은 기분이다.

# 통계와 함께 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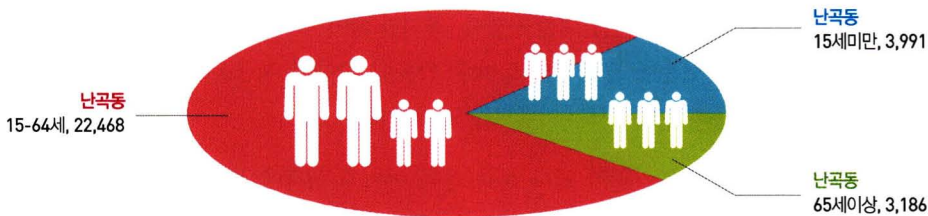
장려상 하순태



2013년 한해 동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봉사 경영컨설팅(이하 T-UM) 동아리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골목 상권의 주를 이루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T-UM은 그런 영세 자영업자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주고 T-UM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실제적 경험을 얻으며 서로가 Win-Win하는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인 우리가 컨설팅에 필요한 1차자료를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얻곤 했다. 아래 소개할 수기는 지난 한 학기동안 난곡동에 위치한 삼계탕 집을 컨설팅하면서 통계자료를 활용한 이야기이다.

## 먼저, 인구조사이다.

자료 1: 서울특별시 총조사인구 총괄(읍면동/성/연령별)



먼저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인지,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고, 통계청에서 제공한 난곡동 인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38.7세이며 15~64세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15세미만의 아이들이 65세이상의 어른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난곡동은 신혼부부나 결혼 10년차 정도의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 부부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유사업종 분석 (경쟁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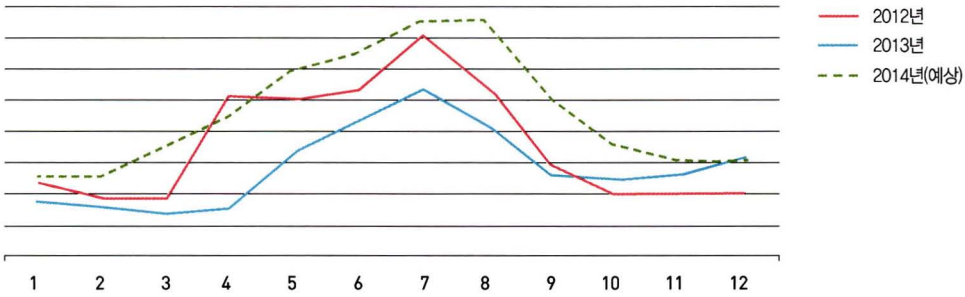
자료 2: 관악구내 업종 분석

업종	전년동월			최근월		
	창업률	폐업률	업력비율	창업률	폐업률	업력비율
음식	1.9%	1.7%		22% (0.3%▲)	1.9% (0.2%▲)	
기타음식	0.9%	0%		0.4% (-0.5%▼)	0% (0%)	
닭/오리요리	1.6%	1.6%		3.6% (2%▲)	2.4% (0.8%▲)	
별식/퓨전요리	2.8%	0%		3.5% (0.7%▲)	2.4% (2.4%▲)	
부패	0%	0%		0% (0%)	0% (0%)	
분식	1.2%	1.9%		1.3% (0.1%▲)	1.8% (-0.1%▼)	
양식	3.7%	1.8%		3.4% (-0.3%▼)	2.9% (1.1%▲)	
유희주점	1.4%	1.6%		4.1% (2.7%▲)	3.2% (1.6%▲)	
음식배달서비스	0%	0%		0% (0%)	0% (0%)	
일식/수산물	3.3%	2.9%		2.4% (-0.9%▼)	2% (-0.9%▼)	
제과제빵 떡케익	0%	2.2%		1.1% (1.1%▲)	0% (-2.2%▼)	
중식	0%	1.6%		0.8% (0.8%▲)	0.8% (-0.8%▼)	
커피점/카페	3.6%	1.4%		3.4% (-0.2%▼)	3.1% (1.7%▲)	
패스트푸드	1.6%	2.2%		0.5% (-1.1%▼)	1% (-1.2%▼)	
한식	2.2%	1.9%		1.6% (-0.6%▼)	1.6% (-0.3%▼)	

업력: ■ 1년이하 ■ 1~2년 ■ 2~3년 ■ 3~5년 ■ 5년이상

난곡동이 속한 관악구를 범위로 하여 요식업을 분석해 본 결과,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큰 매력도인 메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아래 “자료3”의 매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계탕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메뉴이기 때문에 삼계탕만을 고집한다면 비수기 때마다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수기(겨울)에 잘 팔릴 만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료 3: 최근 2년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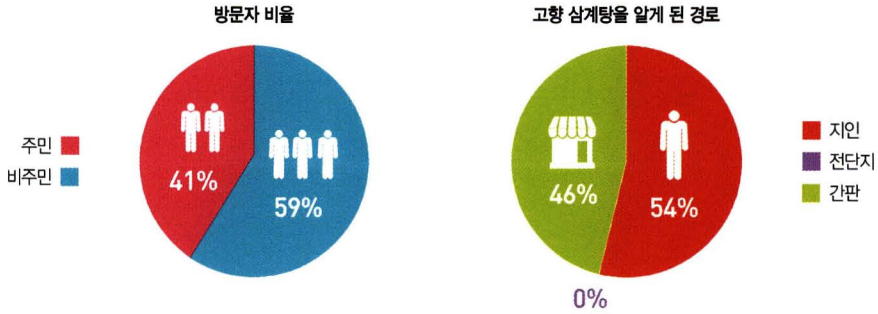
### 셋째, 고객의 수요 파악



자료 4: 삼계탕이 위치한 관악구 난곡동

난곡동은 주변 상권인 신림역, 서울대입구역에 비해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다. 따라서 뛰어난 맛집이 아닌 이상 타지에서 이곳까지 방문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이곳 삼계탕 집의 주 타깃팅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되어야 했다. 삼계탕 집 주변으로 약 30,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에게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크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곳 주민들은 일주일에 1~2번, 많게는 3번 이상 외식을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계탕 이외의 메뉴를 개발하여 외식을 자주하는 주민들을 끌어드린다면 지금보다 매출은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료 5: 방문자 비율 및 삼계탕 집을 알게 된 경로



또한, 전단지를 보고 방문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홍보방법이 필요했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방문경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홍보방안이 필요했다. 즉,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전단지 비용을 줄이고 입소문 또는 간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변경해야 했다.

### 넷째, 전략 도출

이렇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전략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1. 자주 외식 하는 주민들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메뉴 개발
2. 주민들 대상으로 새로운 메뉴 및 가게 홍보
3. 기존 단조로운 분위기를 화분이나 토속적인 아이템을 활용하여 건강한 인테리어를 만든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약 2개월에 걸쳐 직접 실행에 옮겼다. 완벽하게 이뤄진 부분도 있었고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새로운 메뉴개발(닭매운탕, 추어탕)을 통해 이전보다 매출이 크게 올랐으며, 이제는 인근지역에서 맛집으로 서서히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비록 전문 경영컨설턴트처럼 삼계탕 집에 완벽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하진 못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통계를 활용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희망이 되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통계로  
소통하는  
세상이야기 



—  
최우수상  
허성일

우수상  
송희웅, 남윤영

장려상  
김은식, 박찬홍,  
이강석, 이우진,  
이주화



# 누가, 무엇으로 치킨을 튀기는가?

## - 통계로 튀기는 치킨

최우수상 허성일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는 치킨(Chicken)이 있다.”**

재작년 봄,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은퇴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르는 대신 사장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겠노라 선언하셨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존경해 온 아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 치킨집 사장님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다.

치킨집을 개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컸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사업 밑천인 동시에 노후준비 비용이기도 했기에 선택은 신중해야 했다.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개인사업으로 시작한다면 약 2/3 정도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간의 레시피 연구와 20여 년의 테스트 결과(본인과 동생) 맛에서는 자신 있었다. 가족회의의 결과, 치킨집은 프랜차이즈 가맹 없이 가족사업으로 진행하자는 공론이 모였다. 당시에는 “내가 튀긴 게 파는 것보다 더 맛있지 않니?”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우리 집 셰프)의 자신감에 웃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감사드린다. 만일 어머니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우리집은 그저 그런 동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되었을 것이다. 감히 단언하건대, 내 인생은 치킨집을 시작하기 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 치킨은 가슴이 시킨다 (X) 치킨은 통계가 시킨다 (O)

치킨의 맛은 재료와 밀간, 조리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결정된다. 닭은 신선해야 되고, 밀간과 튀김가루를 발라 튀기는 요령에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사업을 개시하고 나니 ‘얼마나’ 튀길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닭이 신선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재료가 오래되지 않도록 소모해야 하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그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손질된 10호 닭(튀김용 닭) 1마리의 가격은 대략 4,500원 내외이다. 만일 주문을 잘못하여 계육이 남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가 되거나, 뒤늦게 팔았을 경우 비린내가 나서 가게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닭 비린내가 나서 가게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실망하고 두 번째에는 고객을 영영 잃게 된다. 초기에는 손해보는 것을 차라리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마음먹고 계육이 남을 경우, 튀겨서 주변 상가나 학생 등에게 서비스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은 비용이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서비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가중치 계육 소모량’ 라는 통계를 만들어 수요를 예측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 많던 치킨은 누가 다 먹었을까?

‘가중치 계육 소모량’의 주요 변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같다.

1. 계절	2. 날씨	3. 이벤트
-------	-------	--------

약 6개월 정도 관찰하고 나자 그전까지는 지난달 판매량과 비슷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문했던 계육량이 보이기 시작했다. 계절과 날씨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여름에는 치맥이고, 날씨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집에서 치킨이 먹고 싶어진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벤트’였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로 갑자기 주문량이 폭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갑자기 급변할 경우, 주문한 상대에게서 이벤트를 유추해야 할 때도 있었다. 주문량이 폭주하면 상시 동원될 수 있는 본인이 배달업무에 추가로 동원되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나가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슬쩍 물어보고 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름의 변수표를 만들고 가중치를 역산하기 시작했다. 나의 영업비밀 중 하나인 계육 소모량 통계를 공개하겠다.

계육 소모량 통계

가중치	1.8	1.42	1.73	2.5	1.34	1.26	예상량	실제량
8월	계절	날씨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1	여름						23	25
2	여름	비				야구	42	45
3	여름		주말			야구	51	58
4	여름	비	주말			야구	72	66
5	여름	비					33	28
6	여름	비					33	32
7	여름						23	19
8	여름						23	21
9	여름						23	29
10	여름		주말				40	43

11	여름		주말			40	35
12	여름			말복		59	71
13	여름				야구	29	23
14	여름				야구	29	26
15	여름					23	16
16	여름	비				33	25
17	여름		주말		야구	51	43
18	여름	비	주말		야구	72	48
19	여름	비			개학일	45	37
20	여름				개학일	31	31
21	여름					23	27
22	여름				야구	29	19
23	여름	비			야구	42	35
24	여름		주말		야구	51	64
25	여름		주말		야구	51	57
26	여름					23	27
27	여름					23	17
28	여름					23	25
29	여름	비				33	31
30	여름					23	39
31	여름	비	주말		야구	72	54
총계						1176	1116

위의 표는 2013년 8월 판매 예상량과 실제 판매량을 데이터화 시킨 것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근접한 값을 뽑아내지 못했으나 현재는 100마리 내의 오차범위를 보이고 있다. 계절/날씨/이벤트별 가중치는 개업 이래 2년간 통계량을 SPSS(통계분석 프로그램)로 회귀분석하여 유의미한 값들을 추려낸 것이다. 예컨대 계절별로 여름의 경우 약 80%, 날씨의 경우 비가 올 때 40%, 주말의 경우 7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별다른 변인이 없는 봄이나 가을 평일에는 하루 매출량이 10마리 내외인 날도 있지만 여름이나 연말의 경우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때도 있다. 치킨 판매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삶에 대해 좀 더 접근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별 관심 없었던 학생들의 개학 일은 학생들이 치느님을 영접하는 날이다. 또한 야구라면 WBC밖에 본 적이 없던 내가 두산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증가하는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에 두산 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하지만 경기일마다 그런 건 아니었던 지라 얼마나 중요한 경기냐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치킨집만큼 조상님의 은덕을 많이 보는 사업도 없다. 안 그래도 치맥이 잘 나가는 여름, 복날이 되면 기름 솥이 식을 틈도 없이 치킨이 튀겨진다. 2013년 말복은 월요일이라 70여 마리에서 그쳤지만, 같은 해 초복(7월 13일)은 주말이었기에 100마리도 넘는 치킨이 튀겨졌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경험은 다시 해 본 적 없을 만큼 대단한 하루였다. 추석이나 구정도 대목이다. 명절과 치킨이 무슨 상관이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모르지만 21세기 치킨은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국민음식이다.

2015년 현재, 나는 변인(이벤트)을 미리 유추하고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계산한 가중치를 곱해 계육의 주문량 결정하고는 한다. 이 부분은 아직 2년차라 어느 정도 예측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되면 프로그램화하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통계의 활용은 말처럼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다. 2015년 8월 계육 소모는 12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1000마리도 넘는 치킨을 누가 다 먹을까 싶지만 문제없다. 치킨은 본디 1인 1닭이니까. 단언컨대 치킨은 가장 완전한 음식입니다.

## 굽느냐 튀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가 있다면 치킨집에서는 후라이드냐 양념이나, 굽느냐 튀기느냐가 있을 것이다. 주문하는 손님들도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망설이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진다. 여기에 솔로몬의 선택이 있다. 반반 무 많이!

하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로스트 치킨(이하 구운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의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간장과 양념치킨 등 후라이드 기반의 치킨들은 염지 과정을 거친 닭을 2번 튀겨 내는 것까지 조리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념만 바꾸면 되지만 구운 치킨은 조리법도 다르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고 손쉬운 후라이드 치킨 종류만 취급할 수는 없다. 구운 치킨 메뉴가 아예 없다면 손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적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주문내역을 확인해 보니 구운 치킨을 주문하는 고객들은 대개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칼로리에 신경 쓰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주문하는 사람들의 주기와 습성 등을 파악해서 미리 조리할 준비를 해 둘 수 있다면 준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은 정기적인 일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온갖 변수들이 있는 일이기에 구운 치킨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계육 주문량 예측처럼 잘 들어맞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미리 밀간 등을 준비해 둔 것이 유효할 경우 조리시간이 3~5분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현재 구운 치킨은 전체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리 재료를 준비해 둔 날은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고객의 핸드폰으로 이벤트 메시지를 발송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준비된 계육을 소모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 인생은 치킨의 연속이다.

통계가 말해주는 우리 가족 치킨집의 미래는 비교적 밝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변에 경쟁점이 하나 더 들어왔음에도 작년동기대비 매출액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증가하였고, 내가 배달에 급히 차출되어 뛰어다니는 날도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바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은퇴 후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치킨전문점 창업자 가운데 3년 이내 폐업 비율은 약 50% 정도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올해를 무사히 넘긴다면 사장님(아버지)은 견뎌낸 50%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처음에 통계분석을 하겠다고 자료를 수집할 때만 해도 컴퓨터와 씨름하느니 전단지 한 장을 더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미심쩍어하던 가족들도 계속 소비량을 예측하고, 매출액을 미리 가늠하게 해주는 통계의 마술에 새삼 놀라는 눈치다.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삶에 구체화시켜 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 납품하는 계육업자 분이 이 집은 어떻게 폐기나 추가 주문도 없이 장사를 하느냐고 혀를 내두르기에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그런 걸 다 배워왔다는 아버지의 은근한 자식 자랑에 속스럽기도 하지만 내심 뿌듯했다.

요새는 주변 치킨집 사장님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 지역의 치킨배달관련 데이터를 만들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장님들은 이를 이용해 계속 폐기량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좀 더 크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변수와 가중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는 아직 2년 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전국 치킨집의 미래를 점치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부디 치킨을 오래오래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신선한 닭으로 여러분 댁을 찾아가겠습니다.

# 통계로 만든 우리 가게 제2의 전성기

우수상 송희웅



## 통계, 선택은 했지만 효(孝)는 아니었다.

내가 대입시험에 낙방을 하고 재수를 마음먹었을 때쯤, 아버지는 20년 가까이 다니셨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시고 어렵사리 대학가 근처 목 좋은 곳에 슈퍼마켓을 차리셨다. 워낙 근면성실하셨던 분이셨기에 가게는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다시 수능을 마치고 성적이 나왔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교대에 가서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자가 되길 원하셨지만, 그 길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고 싶었던 일반 사립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이듬해 통계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가능했던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 하지만,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퍼져서일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가게 근처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비롯해 편의점 두 곳이 더 들어섰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였다. 위치적 특성상 방학에 들어서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야 연례행사였지만, 특히나 작년 겨울방학에 들어설 무렵에는 각종 사건사고의 여파로 매출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장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물건을 떼올 때 외상을 지켰다며 한숨을 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게를 위해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가게 계산대에서 사용하는 POS 기계의 통계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통계는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수치 그 자체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탐색해보기 위해서 우선 POS를 열어봤다.



〈그림 1〉 POS 카드거래내역 조회 화면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POS는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카드 거래내역 중 a) 구매 총액, b) 판매시간, 그리고 c) 물품목록 뿐이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여러 책을 뒤져본 끝에 맨 처음 생각한 것으로는 연관성 분석을 이용한 물품구매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슈퍼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할 때 단품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라는 물건을 사면 그것을 보완하는 B라는 물건도 같이 구매한다. 예를 들면 맥주를 살 경우에 맥주만 사지 않고 안주도 같이 구매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주로 같이 구매하는 물건들의 조합을 알게 되면 그 물건들을 가까운 거리에 진열하거나, A라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 B라는 물건을 살 때 할인을 해주는 방식 등을 도입해서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우선 가게에 등록되어있는 8천 개가 넘는 물품 목록을 엑셀로 추출해서 아래와 같이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애초 POS에 상품을 등록할 때 바코드와 함께 대분류를 함께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중분류를 하는 것과 잘못 분류돼있는 것만 정정하는 것뿐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다. 다음으로 할 것은 2014년 카드 거래내역 중 6개월간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코딩을 하는 것이었다. 6개월로 정한 이유는 대학가 근처라는 특성상 학기 중 3개월, 방학 중 3개월간 손님들의

1	바코드	상품명	대분류	중분류	판매가	비고
8433	8809098308164	잡화	4	4500	우산	
8434	8809098308690	잡화	4	6000	우산	
8435	8809098308768	잡화	0	4800	계곡밥	
8436	8809098950011	잡화	1	2900		
8437	8809099100064	잡화	1	2000		
8438	8809099294268	식품	1	2500		
8439	8809100010801	식품	3	500		
8440	8809100353168	식품	3	3200		
8441	8809100353175	식품	3	2000	협사음	
8442	8809102680019	식품	2	3800		
8443	8809102680026	식품	1	3500		
8444	8809102680057	잡화	1	4000		
8445	8809102680064	잡화	1	4300		
8446	8809102680071	주방용품	1	4900		
8447	8809102680156	주방용품	2	2500		
8448	8809102680194	안주	1	2300		
8449	8809102680217	안주	1	1500		
8450	8809103431009	안주	1	1000		
8451	8809103431016	안주	2	500		

〈그림 2〉 엑셀로 추출한 물품목록 범주화 작업

구성이나 주 판매물품이 달라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손님 한 명당 하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단품만을 구매한 목록을 제거한 뒤, 〈그림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코딩을 하였다. 이렇게 형식에 맞게 코딩을 마친 데이터를 통계패키지에 입력하고 결과를 얻어냈다. 단품만을 구매한 고객을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최소 지지도를 2로 설정하여 여러가지 구매조합 중 최소 두 번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는 것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소한의 옵션만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웠다.

〈표 1〉 신뢰도(구매확률)가 높게 나온 상위 다섯가지 조합

Consequent	Antecedent	Confidence%
음료 = T	과자 = T	13,31
빵류 = T	과자 = T / 식품 = T	11,34
물 = T	빵 = T / 주류1 = T	9,51
주류2 = T	신선식품 = T / 주류1 = T	9,44
과자 = T	주류1 = T / 식품 = T	8,59

\*주류1=소주류, 주류2=맥주류

\*\*과자를 살 때 음료를 함께 구매한 경우가 13.31%라는 것을 의미

A라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B라는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0.2를 넘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나온 것은 과자와 음료수였는데 그마저도 0.13에 지나지 않았다. 주변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던 하지만, 주 고객은 지나가는 대학생들이다 보니깐 단골보다는 뜨내기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객들 취향이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데이터 코딩까지 힘들게 마친 상태에서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어 무언가 가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았다.

###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림 3〉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가게 매출을 올리려면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 가게들에 비해 가격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저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편의점을 상대로는 가능할지라도 대형 슈퍼마켓을 상대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 가게는 앞서 말했듯이 최단거리로 주거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목 좋은 진입로에 위치해있다. 때문에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지는 않더라도 누구라도 지나가는 와중에 한 번은 반드시 눈이 머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인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 문 앞에도 미끼상품이라고 불리는 행사상품을



진열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음료나 과자 등을 주로 묶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언제부터인가는 과일 꾸러미나 각종 선물세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광고공간을 허투루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며칠을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량이라고는 구매 총액, 판매시간, 그리고 물품목록 뿐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어보였다. 그렇게 어느 겨울 때와 마찬가지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던 작년 겨울방학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는 누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셔서 대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 아홉시쯤이 되자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삼삼오오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중 재미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하였다. 대략 아이 네 명 중 한 명 꼴로는 우리 슈퍼에 들러서 물건을 사갔고 나머지 세 명의 아이도 우리 슈퍼에 눈길을 주긴 했으나 대부분 엄마들이 모퉁이를 돌아 조금만 가면 나오는 대형마켓에 가서 사주겠다는 듯이 손짓을 하며 지나쳐 가는 것이었다. 이때 시간대별로 오는 손님의 구성이 다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일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주(主)를 이루어 판매되는 물품이 다를 것이고, 그에 맞추어 가게밖에 손님들이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상품으로 내놓는다면 가게 안으로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대를 다음 <표 2>와 같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 시간대별 특징 분류

시간대	설명
① 오픈~9:30	직장인 출근, 유치원생 등원, 중고등학생들 방학 보충
② 9:31~11:00	점심시간 전 한적한 시간대
③ 11:01~13:00	점심시간대
④ 13:01~17:00	점심시간 이후~저녁시간 전
⑤ 17:01~18:30	저녁시간~퇴근 전
⑥ 18:31~10:00	퇴근시간대
⑦ 10:01~마감	늦은 밤

당시가 11월이었기 때문에 겨울, 그리고 방학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2013년 11월~2014년 2월, 그리고 2014년 11월까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손님 한 명당 하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리 설정해둔 분류에 따라 구매한 물품들을 카운팅 한 후 품목별로 합산되도록 코딩

담배 하나만을 사가는 경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그 경우는 제외하고 코딩을 진행하였고 시간대별로 많이 팔린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침시간대에는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탕류, 우유, 따뜻한 커피가 주로 판매되었고 저녁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주류나 과일, 과자가 많이 판매되었다. 점심시간대에는 주로 라면이나 식품류 중 두부나 콩나물, 참치 캔 등이 많이 팔리긴 했지만, 방학이라 그런지 다른 시간대에도 많이 나가는 품목이라서 시간대에 따라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품목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주어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할인마케팅 상품은 아침 시간대 '사탕류, 우유, 따뜻한 커피'와 저녁시간대의 '과일, 과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상품들을 무조건 할인해서 판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가게 밖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마진율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겨울 날씨에 실외에 내놓아도 제품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조건의 이유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밖에 내놓은 상품을 사러 오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도 같이 사주길 바랄지라도 그것은 판매자의 바람일 뿐 실상은 밖에 세일하는 제품만을 단품으로 사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당연하지만 제품이 손실될 경우 아무도 사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마진율과 겨울 내 가게 밖에 진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토대로 제품 선정을 해보았다.

〈표 3〉 시간대별 주요제품 마진율과 진열가능성 최종결정

시간대	제품류	마진율(%)	제품손실이 있는가	최종결정
아침	사탕류	25~28,5	X	O
	우유	5,8	O	X
	따뜻한커피	25~30	X	△
저녁	과일	15~25	△	O
	과자	25~40	X	O

먼저 아침시간대 후보군을 살펴보면 우유는 마진율도 적을뿐더러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 넣어두지 않으면 금방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남은 것은 사탕류와 따뜻한 커피였는데, 사탕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 할인상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고 따뜻한 커피 같은 경우는 보온기를 가게밖에 내놓는 것으로 제품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저녁시간대 후보군에서는 과자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없이 밖에 진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됐고, 과일류는 얼거나 찬바람을 맞으면 쉽게 변이되는 상품들은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진열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 시간대별 할인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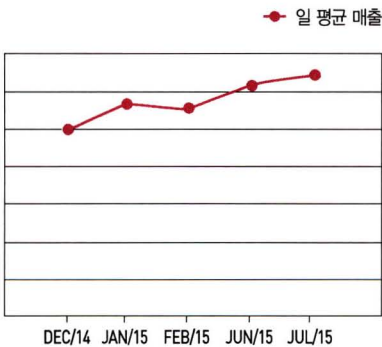
시간대	할인상품
① 오픈~9:30 / ② 9:31~11:00	사탕류, 따뜻한 커피
③ 11:01~13:00 / ④ 13:01~17:00	따뜻한 커피
⑤ 17:01~18:30 / ⑥ 18:31~10:00 / ⑦ 10:01~마감	과일, 과자

그렇게 가게 오픈시점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가게 문 앞에 마이\*, 새\*달\* 같은 사탕류와 따뜻한 커피를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내놓고 판매하였고, 점심시간대부터 저녁시간대 전까지는 특별히 잘 나가는 품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커피는 어느 시간대나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시간대부터 마감 때까지는 보온기를 가게 안으로 들여놓고 과일과 과자를 밖에 내놓고 판매하였다.

이때 과자는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잘 팔리지 않아서 싸게 소매로 들여온 물건이 아닌 판매율이 좋은 상위 10개 품목을 매일같이 바꾸어서 선정하였다. 소비자마다 선호하는 과자가 다를뿐더러 과자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할인마케팅을 시행한 것이 '14년 11월 말부터이므로 12월을 기준(100)으로 두고 최근 15년 7월까지의 일 매출 상승폭을 월별로 조사하였다. 단, 앞서 말했듯이 대학가에 위치했다는 특징 때문에 학기 중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상승되는 3월부터 5월까지의 제외하였다.

### 매출이 과연 상승했을까?



〈그림 5〉 일 평균 매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할인정책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보았던 실 매출이 고객수와 함께 점차 호전세를 보이며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 위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무려 매출이 20%p 이상 상승했다. 물론 6월부터는 날씨가 추웠던 연초와 달리 따뜻한 커피를 할인품목으로 내놓을 수 없으니 아이스크림을 대신해서 할인품목으로 내놓은 것만 바뀌었을 뿐이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더라도 15%p 이상 매출이 상승하였다.

### 처음으로 대학을 다닌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지역적 특성상 경쟁해야 되는 가게가 많고 뜨내기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단골손님'을 많이 찾을 수 없었던 우리 가게에서 근래 들어 단골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우리가게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는 뭐 귀찮게 이렇게까지 하나며 내 의견에 반신반의하셨던 아버지도

처음 할인정책을 시행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오후 늦게 와서는 사탕이 싸다고 해서 왔는데 왜 가격이 올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당일 할인판매하는 과자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과자를 할인해달라는 사람 등등.....  
 근 한 달간은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조율하면서 정책을 수정하다 보니 매출에 큰 상승이 없었던 것 같다.

작년과 대비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매출전표를 보시고는 점차 인정해주시는 분위기다. 처음 시작한 장사가 너무 안 돼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나고 나니 학교에서 ‘주어진 데이터’로 ‘정해진 답’을 찾는 것만 해보았던 내가, 전공을 살려 생활 속에서 통계를 다루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이기도 했기에 나에게서는 여러모로 참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통계란 것이 결코 내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사용 통계 패키지/프로그램: CLEMENTINE, SPSS14, EXCEL

참고서적: SAS/SPSS COOK BOOK(박종선, 허문열)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강병서, 김계수)

데이터마이닝 모델링과 사례(허명희, 이용구)

# 자녀 컴퓨터 사용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우수상 남윤영



최근 들어 큰 아이의 컴퓨터 사용량이 부쩍 늘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니 좋아하는 놀이 유형도 달라진 데다가 컴퓨터 활용능력까지 향상이 된 덕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면서, 컴퓨터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던 때에 우연히 중요한 통계자료 하나를 읽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였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자 가운데 40%가 초·중·고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우리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우리 아이도 인터넷 중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무조건 컴퓨터를 금지시킬 수도 없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학교 과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따져보던 중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내어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컴퓨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아이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생각했다.

제일 먼저 참고한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계였다. (수록기간 2013)

## 컴퓨터 사용여부

		사례수(명)	컴퓨터 사용여부(%)		
계		2,108	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	남자	1,075	100.0	92.5	7.5
	여자	1,033	100.0	80.6	19.4

## 컴퓨터 사용장소

		사례수(명)	컴퓨터 사용장소(%)							
계		1,827	계	우리집	친구집	학교	학원	pc방	복지기관	기타
성별	남자	994	100.0	73.7	0.0	2.1	0.1	23.8	0.1	0.1
	여자	833	100.0	92.8	0.2	4.2	0.0	2.0	0.0	0.7

컴퓨터 이용빈도							
		사례수(명)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계		1,827	계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	남자	994	100.0	15.3	45.4	27.8	11.5
	여자	833	100.0	30.1	50.8	14.2	4.9

		사례수(명)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이용(%)				
계		1,827	계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	남자	994	100.0	30.1	50.4	13.2	6.3
	여자	833	100.0	38.9	48.5	7.1	5.5

자료를 분석해보니 <컴퓨터 사용여부>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컴퓨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 시대로 도약한 요즘, 컴퓨터를 이용 못하게 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장소>의 통계를 보니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우리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을 집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컴퓨터 사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집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바른 컴퓨터 사용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고심하던 중 <컴퓨터 이용빈도>의 통계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컴퓨터 이용빈도> 통계자료는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를 이용했느냐, 즉 컴퓨터 사용목적에 기준으로 나누어진 통계자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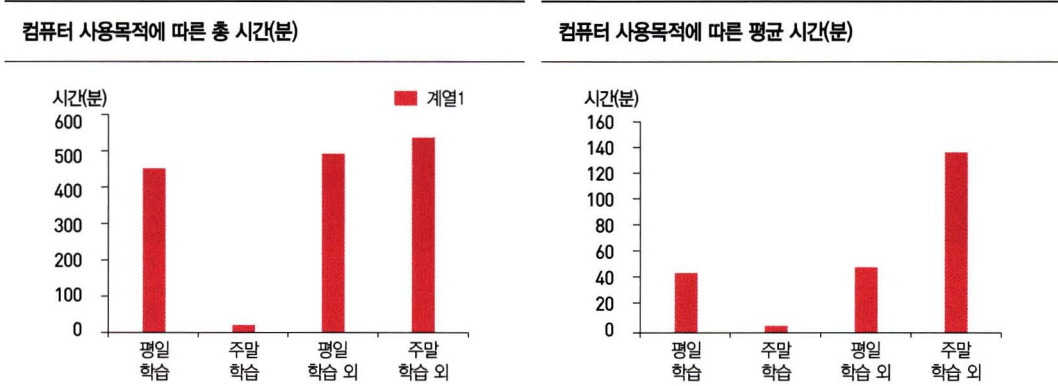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아이의 컴퓨터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빈도를 조사해보았다.

6월 중 2주 동안 우리 아이의 컴퓨터 사용빈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짜	6월 8일	6월 9일	6월10일	6월11일	6월12일	6월13일	6월14일
학습관련 이용(분)	40분	40분	40분	40분	60분	10분	·
학습이외 이용(분)	35분	34분	43분	45분	88분	127분	136분
날짜	6월15일	6월16일	6월17일	6월18일	6월19일	6월20일	6월21일
학습관련 이용(분)	40분	40분	40분	50분	60분	10분	·
학습이외 이용(분)	41분	27분	42분	39분	98분	135분	140분

6월 8일부터 6월 21까지 2주 동안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을 분석해 본 것이다. 학습관련 이용시간과 학습 이외의 시간을 나누어보았더니, 우리 아이의 컴퓨터 사용빈도는

주중과 주말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뚜렷한 차이를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 사용목적에 따른 총 시간과 평균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



컴퓨터 사용목적에 따른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일에는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시간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양이 비슷한 데에 비해, 주말에는 학습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학습 외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 학습 외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항목의 사용빈도에 비해 월등한 시간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가 학습 외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다. 막연하게 감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대신 이번에도 구체적인 통계의 방법을 활용했다.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이가 학습 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을 분석하여 분류를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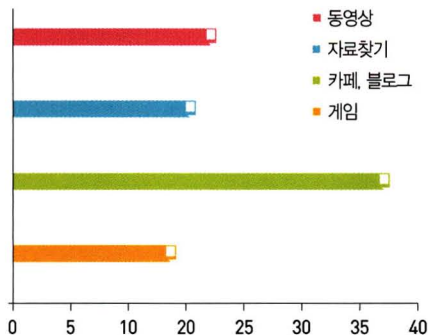
**날짜별 구체적인 검색 내용 및 시간(분)**

날짜	내용 구분	구체적인 내용	시간	전체시간
6월 22일 (월)	동영상	트랜스포머, 축구	10분	36분
	자료 찾기(사이트)	트랜스포머, 과학 캠프	8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뎅이, 트랜스포머	18분	
	게임	여러 가지 게임	10분	
6월 23일 (화)	동영상	트랜스포머, 인사이드 아웃	9분	40분
	자료 찾기(사이트)	인사이드 아웃	8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뎅이, 레고	23분	
	게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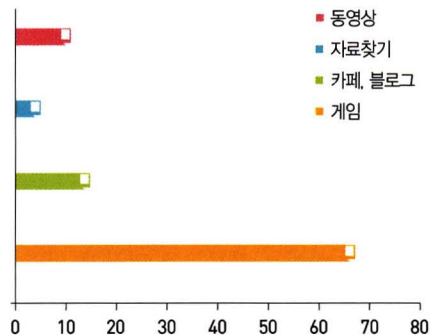
6월 24일 (수)	동영상	어벤져스	6분	38분
	자료 찾기(사이트)	어벤져스	7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뎡이	15분	
	게임	여러 가지 게임	10분	
6월 25일 (목)	동영상	어벤져스	10분	34분
	자료 찾기(사이트)	어벤져스	9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뎡이, 어벤져스	15분	
	게임	.	.	
6월 26일 (금)	동영상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0분	80분
	자료 찾기(사이트)	트랜스포머, 인사이드 아웃	15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뎡이	15분	
	게임	여러 가지 게임	30분	
6월 27일 (토)	동영상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15분	135분
	자료 찾기(사이트)	트랜스포머	10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뎡이, 친구 블로그	20분	
	게임	여러 가지 게임	90분	
6월 28일 (일)	동영상	트랜스포머, 어벤져스	17분	147분
	자료 찾기(사이트)	과학 캠프	5분	
	카페, 블로그 방문	장수풍뎡이, 친구 블로그	25분	
	게임	여러 가지 게임	100분	

날짜별 구체적인 검색내용 및 시간을 표로 나타내어 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도 특징이 드러났다. 이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위 표를 그래프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평일 학습 외 컴퓨터 사용내용(%)



주말 학습 외 컴퓨터 사용내용(%)





학습 외 컴퓨터 사용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평일과 주말을 나눌 수 있을만한 큰 특징이 나타났다. 평일에는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내용들이 카페, 블로그 방문의 항목만 조금 높을 뿐 전반적으로는 모든 항목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말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내용에서는 게임이 70%에 육박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 아이가 평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진짜 문제는 주말 학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시간 및 내용이었다. 주말에는 학습 외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더군다나 그 대부분의 시간이 게임에 사용되고 있었다. 주말에 많은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는 문제를 찾아내었더니, 그 다음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차례였다. 평일에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가 주말에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게 시급했다.

우선 우리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 및 내용들을 나타내주는 표와 그래프를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표와 그래프를 보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엄마가 제가 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는 늘 바쁘시잖아요.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특히 동생 돌보느라 늘 바쁘시잖아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는 아이의 말 속에서 아이의 외로움이 묻어났다. 아이의 말을 듣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가 서운할 만했던 게 수궁이 가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졌다. 엄마의 따뜻한 품을 갈구하던 아이는 엄마의 일에 밀려나고 동생에게 밀려났던 것이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엄마 하던 일 끝나면.’ ‘지금은 동생 돌봐주어야 해.’ 라는 말들을 들어왔던 것이다.

“그랬구나, 그동안 우리 원이가 많이 속상했었겠구나.”

나는 동생을 잠시 내려놓고 큰 아이를 안아 주었다. 다 컸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나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 원이는 왜 주말에만 게임을 많이 하는 걸까?”

“평일에는 할 일들이 많잖아요. 학교에도 가고, 태권도도 다녀오고, 숙제도 있고요. 또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하고도 많이 놀잖아요.”

아이는 나를 뺀히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주말에는 시간이 나서 엄마랑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엄마는 늘 바쁘다고 하고…….”

“원아, 엄마랑 뭘 해보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블로그 만들고 싶어요. 요즘에는 내 친구들도 블로그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큰 아이는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사다가 키우기도 했다. 블로그에 장수풍뎅이 키우는 이야기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글도 함께 작성했다. 신기하게도 함께 블로그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는 게임에 손도 대지 않았다. 심지어 블로그에 학습자료를 신겼다면 학습에 열의를 보이기까지 했다.

방문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여겼던 어느 날이었다. 블로그 방문자 중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 한 명이 게임관련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 뒤로 종종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 게임관련 댓글을 남겼는데, 그 뒤로 게임에 관심이 많은, 더 많은 블로거들이 우리 블로그를 방문했다. 정말 이상했다. 나와 우리 아이가 만든 블로그에는 게임과 관련된 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영문을 몰랐다. 게다가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던 사람들이 관심을 두던 게임은 초등학교 아이가 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었다. 그때 블로그화면 상단 좌측에 '통계' 라는 글자가 눈에 쏙 들어왔다. 나는 통계에 마우스를 대고 얼른 클릭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블로그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눈앞에 펼쳐졌다.

**블로그 방문 현황**

		2015. 7. 1	2015. 7. 2
방문현황	방문횟수	32△ 5%	30
	방문자수	31△ 4%	30
	페이지뷰	32△ 3%	31

**블로그 검색 유입 분석**

순위	검색어	유입율	주요 검색엔진비중
1	트랜스포머 게임	62.6%	*** 100.0%
2	장수풍뎅이	7.8%	*** 100.0%
3	초등학교 3학년 수학	7.0%	*** 100.0%
4	초등학교 3학년 국어	5.8%	*** 100.0%
5	**버스정류장	2.9%	*** 100.0%

**방문자 분포 통계(2015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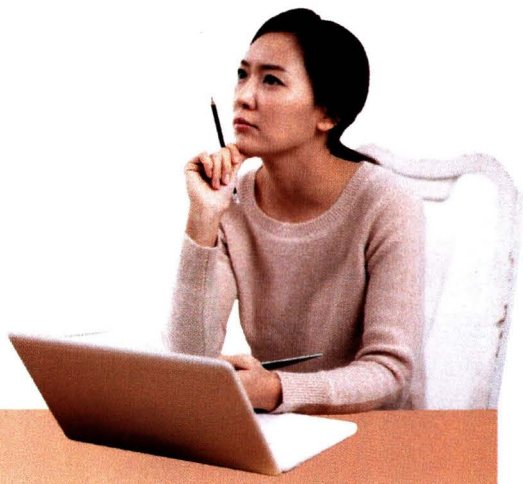
성별	방문횟수	비율
여자	5	15%
남자	15	46%
기타	12	37%
관계별	방문횟수	비율
서로이웃	10	31%
이웃	2	6%
비이웃	10	31%
기타	10	31%
연령별	방문횟수	비율
12세 이하	8	25%
중고생(13~18세)	1	3%
20대(19~29세)	11	34%
30대(30~39세)	9	28%
40대(40~49세)	1	3%
50대 이상	1	3%
기타	1	3%

블로그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트랜스포머 게임'이라는 단어가 블로그 유입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블로그의 글들을 샅샅이 살펴보니, 트랜스포머 게임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 글귀 중에 '트랜스포머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글이 있었고, 그것에 연관되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통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나와 큰 아이는 글귀에서 '트랜스포머 게임'이라는 내용을 얼른 지우면서 글 내용을 수정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게임을 즐겨 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푹 끊긴 것이었다. 이렇듯 나는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통계를 기반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지극히 주관적으로만 보이는 아이 양육의 문제들도 객관적인 통계로 풀어봄으로써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소해 보여서 놓치기 쉬운 생활 습관들도 통계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컴퓨터에 대처하는 올바른 부모의 자세는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님도 깨달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는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에 접근할 때 더 빛나는 사랑과 신뢰가 싹틀 수 있다.

# 통계와 함께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용어 다듬기 운동

장려상 김은식



전화벨 소리가 심상찮은 걸 보니 그 아저씨가 틀림없다.

전화를 받으니 ‘역시나’ 였다. 낮 2시지만 아저씨는 벌써부터 술에 취해 있다.

“왜 돈이 안 나와! 돈 내놔!”

술 취한 목소리에는 욕과 고성이가 골고루 섞인다. 휴, 나는 심호흡 한 번 하고,

“선생님은 조건부 수급자인데, 조건 불이행해서 추정소득이 부과되었습니다. 원래 금융재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칠만 원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 아들 때문에 상시소득으로 부양비가 이십만 원 부과되어 있어요. 본인의 추정소득까지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팔십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급비가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상황이면 소득 인정액이 1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 중지됩니다. 당장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저씨는 기초수급자이고 아저씨와 상담하고 있는 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다. 매번 반복되는 기초수급자와 사회복지공무원 간의 대화다.

“아, 됐고,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아저씨는 다시금 소리친다. 반복되는 지겹고 징그러운 일상이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욕쟁이 아저씨를 비롯한 기초수급자는 나를 포함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안내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조사해 봤다. 우리 구에는 13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마다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2달 간, 달마다 6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용어를 가지고 본인어 아는 용어에 대해 그 뜻을 적게 하고 처음 보는 용어일 경우 그 뜻을 추측해서 적게 했다. 설문 대상자는 총 639명이고 설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이름		성별	(남, 여)	나이	
		최종학력		수급기간	
용어	용어에 대해 뜻을 알고 있으면, 그 뜻을 써 보세요.			용어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떤 뜻을 나타낼 지 그 뜻을 써 보세요.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 생계비					

설문결과를 통계로 내어보니 그 내용이 놀랍다. 뜻의 맞고 틀림에 상관없이 용어를 알고 있는 수급자가 41.7%이고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수급자가 58.3%이다. 이 중 용어를 알고 그 뜻도 정확히 알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6.6%이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 모르나 용어를 보고 뜻을 추측해서 정확히 맞춘 수급자는 전체의 1.3%이다. 우리 공무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소 귀의 경 읽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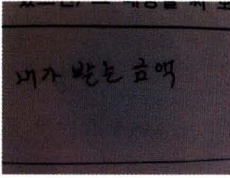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용어 인지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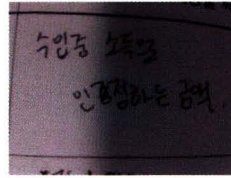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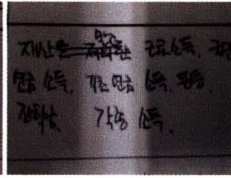
	용어를 알고 뜻도 정확히 알	용어를 알고 있으나 뜻을 잘못 알	용어를 모르나 뜻을 정확히 추측함	용어를 모르고 추측한 뜻도 틀림	용어도, 내용도 전혀 모름
소득인정액	0(0)	338(52.9)	12(1.9)	181(28.3)	108(16.9)
재산의 소득환산액	24(3.8)	120(18.8)	7(1.1)	176(27.5)	312(48.8)
최저생계비	56(8.7)	304(47.6)	8(1.3)	204(31.9)	67(10.5)
부양의무	63(9.9)	296(46.3)	0(0)	216(33.8)	64(10)
부양비	48(7.5)	216(33.8)	3(0.5)	284(44.4)	88(13.8)
건부수급자	0(0)	303(47.4)	0(0)	178(27.9)	158(24.7)
건부과제외자	0(0)	178(27.9)	0(0)	121(18.9)	340(53.2)
생계급여	104(16.3)	256(40)	20(3.1)	171(26.8)	88(13.8)
주거급여	120(16.8)	120(18.8)	35(5.5)	124(19.4)	240(37.5)
추정소득	40(6.3)	240(37.5)	10(1.6)	80(12.5)	269(42.1)
사적이전소득	9(1.4)	200(31.3)	0(0)	45(7)	385(60.3)
무료임차소득	39(6.1)	121(18.9)	7(1.1)	106(16.6)	366(57.3)

조사한 것 중 3가지만 간추려 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수급자가 단 1명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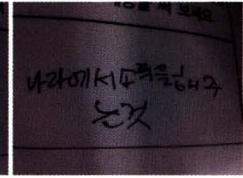
〈그림 1〉처럼 '소득인정액'이란 용어에 대해 알고 있으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림 2〉처럼 모르는 용어의 뜻을 추측한 것도 잘못된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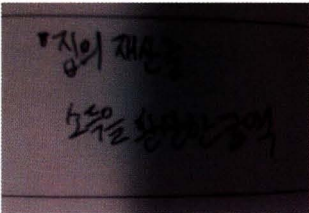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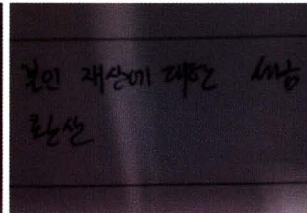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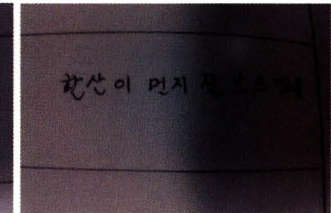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자들은 대부분 소득으로 환산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그림 3〉처럼 용어에 대해 알고 있으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림 4〉처럼 모르는 용어를 추측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많고 〈그림 5〉처럼 ‘환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수급자도 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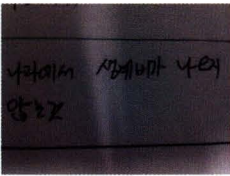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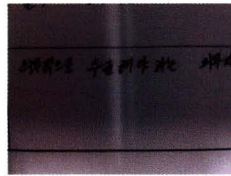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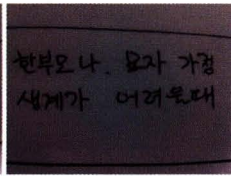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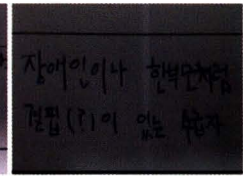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이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거나 정확히 추측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그림 6〉처럼 용어에 대해 알고 있으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림 7〉처럼 모르는 용어를 추측한 것이 잘못된 것도 많다.



〈그림 6〉



〈그림 7〉



위의 통계처럼 용어에 대한 수급자의 관심과 이해 수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렵고 낯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용어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위험과 가난에 닥친 사람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렵고 낯선 용어 때문에 머릿속은 혼동 그 자체다. 그래서 신청인은 아무런 이해없이 담당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할 뿐이다. 가난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측은하게 보는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에 자존감은 더욱 떨어져 신청인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수급자로 변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다수 고령이거나 저학력인 수급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어는 너무 전문적이다. 그것은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담당자인 사회복지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누군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어가 공무원 사이에서만 쓰는 은어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회사의 동료며, 선배, 후배들에게 통계자료를 보여 주니 모두들 놀랄 따름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우리가 안내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라고 할 때는 무덤덤하던 그들이, 기초수급자 639명 중 6.6%만 용어에 대해 안다고 통계 수치를 들어가며 말하니 모두들 기겁했다.

이 통계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용어 다듬기 운동을 했다. 사하구의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어에 대해 바꿔 부를 용어를 모집해서 소득인정액'은 '수급 자격 기준선'으로, '사적이전소득'은 '도움소득'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일해야 하는 수급자'로 바꿨고 우리 구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최종 선정된 '다듬은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다듬는 활동을 통해 사회 안에서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러한 고통을 가져온 배경과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가졌던 무관심과 소극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통계자료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큰 힘이 됐다.

# 2013년 6월 그 이후

장려상 박찬홍



지난 2008년 삼십 대 초반을 막 지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준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였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그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였다. 물론 이 또한 삶의 변화를 통한 소중한 행복이었다. 같은 해 큰딸 수연이를 출산하였다. 3.3kg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수연이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또한 우리 부부의 소중한 보물이기에 보다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였다. 이곳 저곳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마사지하는 법, 아이 정서에 좋다는 음악, 놀이, 산책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다양한 이유식 레시피를 얻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아이가 아플 때이다. 갑작스런 고열이나 설사 혹은 피부에 발진 등이 생겼을 때 특히나 병원에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많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대처방법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키우시면서 체험하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작스런 설사를 할 경우 우선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지근한 보리차를 조금씩 먹이며 아이의 얼굴 표정과 활동량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육아사이트나 일반적인 소아과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비슷했다. 대대로 아이들을 키우며 체험하면서 저절로 계승이 되는 방법이 어느덧 자리를 잡아 의학적으로나 육아정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아마 통계적으로도 대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민간요법이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에 현대사회에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1년에 둘째 소은이를 출산하였고, 다음 해에는 막내딸 서현이를 출산하여 우리 집은 어느덧 다섯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되었다. 어느덧 아이들이 셋이나 되면서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고,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아이들을 통해 얻는 행복과 즐거움은 그 힘든 부분조차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꿔줄 정도로 아이들의 존재는 큰 의미와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것이었다. 아무 탈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가정에 커다란 슬픔이 찾아왔다. 며칠 동안 미열이 발생한 큰딸 수연이가 입원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열이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바로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6살 수연이의 병명은 원인불명 뇌염이었다. 존재를 알 수 없는 특정한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수연이는 급히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다행히 입원했던 병원 중환자실에 격리실이 2곳이 있어서 사정 끝에 한 곳을 겨우 얻어(기존의 입원해 있던 성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까지) 24시간 우리 부부는 돌아가며 아이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중환자실에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기도과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다. 해열제로도 잡히지 않는 38도 이상의 고열, 수시로 발생하는 경련 증세 그리고 무호흡 속에서 수연이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고, 순간순간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또한 뇌염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어서 여러 항바이러스제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대증요법 밖에 없었기에 그저 하늘에 큰딸의 운명을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 더욱 비참하였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고, 그에 따른 아이의 반응, 대소변 보는 시간, 대소변 색깔, 경련을 한 시간과 어떠한 형태로 경련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과 수치는 수연이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당장 앞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00바이러스제를 얼마나 투여하였고, 그에 따른 수연이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였고, 어떤 약제를 사용하였을 때 아이의 반응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건의해 약제를 바꿔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과 열정으로 중환자실 입원 15일 만에 겨우 열이 잡혔고, 20일이 되었을 때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이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곤 하였다. 먹지 못해 9kg까지 말라 버린 몸 때문에 당연히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 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너무나 기뻐다.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일째 되는 날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반 병동으로 간다는 것은 그 기분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였다.

다행히 일반 병동에서 수연이는 의식이 더 맑게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뇌염환자 대부분이 장애를 갖게 된다는 소견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 세상이 먹먹하고, 모든 것이 낯선 사막 한가운데 우리 부부를 내던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어 특별한 장애없이 퇴원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뇌전증의 증세가 후유증으로 남았고, 그에 따른 학습지연이 발생하였다. 조금씩 호전이 되어 가고 있는 학습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뇌전증이 문제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기 때문에 놀이터, 집, 외출 시에 우리 부부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고, 항상 곁에서 아이를 살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나는 매일 같이 아이의 상태를 기록하였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자고, 밥을 얼마나 먹고, 경련을 한 시간(오전, 오후,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다가 등) 등을 체크하고, 기본적으로 몸무게와 체온을 매일같이 기록하며 작성하였다. 동시에 두 동생 등의 기록도 함께 작성하여 아이들만의 건강노트를 만들었다.

이 노트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다. 특히 큰딸의 가장 큰 문제인 뇌전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달 기준으로 경련의 횟수, 경련형태, 경련시간(오전, 오후 구분), 경련 지속시간, 어떤 상황에서의 경련인지 등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거나 동영상 촬영해 매일 같이 기록하였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매달 내원을 하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었고 기록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아이가 먹고 있는 항경련제의 양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3년차가 되고 있기에 년 단위로 그 기록들을 정리해 통계를 내었더니 아이의 호전상태를 더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경련을 하는 상황이 취침 전인지 취침 후인지 부분을 통계 내었더니 2015년 들어 비율이 거의 6:4가 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더니 취침 후에 하는 모습은 수면불안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질파에 의한 수면불안일 수 있기에 좀 더 큰 병원에 입원해 특수 뇌파검사를 며칠 동안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을 투여해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수연이가 학교에서 지난 4월 초에 딱 1번 경련을 하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이후 걱정과 동시에 불안해하셨다. 2차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과 의견의 통계를 통해 그동안 수연이의 경련 증세와 횟수 그리고 상황 등을 말씀드렸다. 대부분 저녁에 아이가 경련을 하고, 간혹 금번처럼 낮에 하는 경우가 있으나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의견을 드렸다. 물론 지난 3년간의 기록과 통계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이었다. 다행히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경련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우리 부부와의 면담을 통해 안심하시게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우리 부부에게 이러한 기록과 통계자료가 없었다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더 많은 걱정 속에 불안해하며 생활하였을 것이다. 또한 아이의 상태와 경련의 증세, 형태의 기록과 통계자료를 통해 아이가 보다 빨리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치의 선생님과 당당하게 의견을 나누고, 아이의 변화를 정확히 발견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참고로 아이들의 1년간의 건강기록은 다음 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설사를 하는 등의 장염 증세가 나왔을 때 이전의 자료들을 보고, '어느 정도 설사를 하겠다', '약은 며칠 동안 먹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지방에 가거나 다니던 소아과가 문을 닫아 다른 병원에 가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아이에게 맞는 해열제, 감기약의 명칭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한다.

지난 몇 년간의 기록과 통계로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제품의 약이 아이들에게 잘 맞는지 우리 부부는 정확히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껏 매일같이 작성하는 아이들의 대한 건강기록은 하나의 일기처럼 쓰여지면서 우리 집 보물 1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한다. 특히

뇌전증으로 힘든 투병을 하는 큰딸 아이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기록과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건강 통계자료가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찾아 주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된 것이다.

큰딸아이의 후유증인 뇌전증은 갈수록 약화되면서 그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 다행히 그 힘든 와중에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 병원에서 뇌염환자의 대부분이 특수학교를 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우리 부모도 믿기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내 마음고생을 하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다. 조심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부부가 아이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같이 기록하고, 통계자료를 만들어 가며 아이에게 정성을 쏟은 것이 아이의 회복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뇌전증의 완치를 위해 더욱더 아이를 살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아빠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정성과 노력의 바탕은 바로 건강노트에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 한달 한달 그리고 1년, 2년의 기록과 통계내용들이 엄마 아빠의 정성이고, 아이가 더욱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라는 의미는 어려운 수치와 항목이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가정사에 커다란 영향을 준 고마운 의미인 것 같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가정과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통계라는 의미를 보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생활 속 깊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 큰딸 아이의 뇌전증 증세는 2013년 매달 평균 21.8회, 2014년 매달 평균 13.4회, 2015년 7월 기준 현재 매달 평균 8.6회였다. 특히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기에 분명 더 적은 횟수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련증세를 보이는 시간이 19시에서 22시 사이에 평균 90%이상 보였기에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소하면서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소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큰딸 아이의 건강회복을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부부는 힘을 내며 더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좌> 가족 사진 <우> 지금까지의 건강 노트

# 우리학교 통계 동아리

## – 기대해 (EXPECTATION)

장려상 이강석



어느덧 4회째 교내 통계조사분석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숨은 끼와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 동아리(EXPECTATION)가 만들어지고 3년 동안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 동아리에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 동아리를 시작으로 다른 동아리에서도 캠페인활동과 더불어 의식조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즐겁고 신나게 통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보다 깊게 공부하는 학생도 생겨나고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통계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학생들에게 보다 잘 알려주어야겠다는 결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 통계 동아리(기대해 – EXPECTATION)

3년 전 통계 동아리를 처음 만들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보기 위해 동아리 이름을 걸그룹의 노래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기대해(EXPECTATION)라는 제목이었는데 통계에서는 기뻐한다는 뜻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통계 동아리의 여러가지 활동들은 대학 입학에 위한 스펙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동아리가 구성되고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다른 동아리에서 실시한 ‘공정무역 캠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사전, 사후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지 설문결과를 가지고 두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학교의 많은 행사와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행사와 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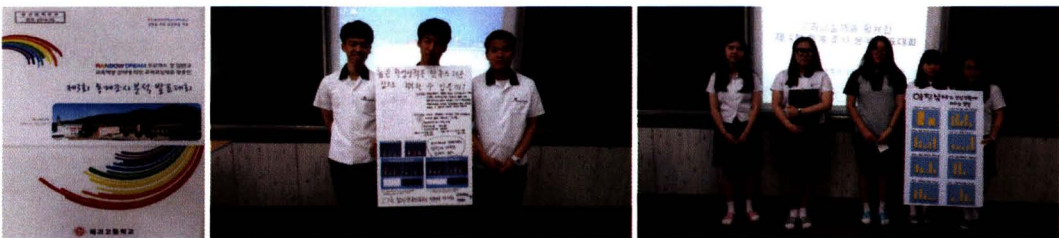
변모를 모색하였고 선생님들과 다른 동아리의 학생들에게도 통계를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에도 전교생 앞에서 1년간 활동한 내용들을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림 1> 교내 행사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모습

## 교내 통계조사분석 발표대회

얼마 전 제4회 교내 통계조사분석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통계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대회를 개최하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부’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침 식사의 영향과 중요성’, ‘인성 플래너의 사용빈도수와 그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업과 진로의 상관관계’, ‘음악과 학습 집중도’, ‘감각의 이용과 뇌의 활성화’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험 설계와 조사방법, 분석력과 발표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한 학생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이 대회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고 대학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양적인 증가와 동시에 질적인 향상은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대회가 끝나면 항상 결과물들을 엮어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 2> 교내 통계조사분석 발표대회

## 충북수학축제 부스 운영-부스인기도조사 및 설문지 작성법

통계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열리는 충북수학축제에 제3회부터 시작하여 부스 운영에 참가하게 되었고 올해에도 제5회 충북수학축제에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충북수학축제에서 유일하게 통계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통계에 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고 의견을 수렴해 부스인기도조사와 설문지 작성요령 부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문지 작성법과 설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였고 부스인기도조사는 스티커를

붙여 시각적으로 통계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자연과 통계’라는 주제로 일기예보의 오보와 환경오염에 대하여 고찰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일기예보가 틀리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기예보의 방법을 앎으로써 오보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 해결방법은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와 동아리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흥미 유발을 위해 4계절 인기도조사도 준비하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판을 준비해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 3〉 중복 수학 축제 부스 운영

## 통계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아직은 고등학생이기에 비록 빈도분석의 수준이지만 수학적 통계만 다루는 교육과정을 벗어나 통계를 알아간다는 짜릿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상관관계분석’이라든지 ‘t검정’ 등과 같은 통계학 전공에서나 배우는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빅데이터’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인은 아니어도 그동안 배우고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이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배우면서 함께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이고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통계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학문임을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찬란한 미래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 속 학교 통계 이야기

장려상 이우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언론과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가 바로 통계수치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우리가 통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통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통계분석과 각종 여론(설문)조사 결과이다.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된 통계분석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계수치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도 통계 없이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통계는 일상화되어 있다. 학기초 학생들의 반편성고사부터 학기말고사 성적처리까지 통계는 학교사회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통계를 크게 6가지 분야로 활용하고 있다. 자살·우울증척도 검사,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지도, 진로·적성 검사 지도,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비교 분석,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 개선사항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수업평가에 있어서 통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통계를 활용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분석이다. 알다시피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과 피해장소를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통계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사후계획과 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필자는 학기 초에 실시하는 자살·우울증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자살·우울증 지수가 아주 높게 나온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알다시피 자살과 우울증은 가까이 함께 생활을 해도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학생이 자살 위험이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학기 초에 전혀 이상이 없는 학생이었지만 자살·우울증 검사를 통해 상담교사와 상의하여 학급에서 2명으로 선정된 학생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담임교사로서

거의 매일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담임교사 상담일지에 학생의 심리상태와 건강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우울증검사 척도를 통하여 단순하지만 담임교사에게는 소중한 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기에 통계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둘째, 통계는 학기 중에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에도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학교에 오면 학생들은 학교규칙에 의해 핸드폰(스마트폰)을 모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알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얼마나 하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지수 검사를 통하여 쉽게 학생들의 인터넷중독지수를 판별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습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인터넷 중독을 통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가 사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학급의 담임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늘 수업과 연관시키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이버공간도 현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는 학생들의 진로·적성검사 지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다시피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학기초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진로·적성검사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분야,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중학교 시기에 적절한 진로 선택과 준비를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과 상담을 하면서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를 안내해주고,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진로진학 상담교사에게 안내를 하여 전문적인 직업교육 서비스와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바로 학생들의 정기고사 평가문항을 통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대로 출제를 하였는지, 어떤 문항은 학생들에게 어려웠고, 어떤 문항은 쉬웠는지 성적 통계는 종합적으로 난이도와 변별력을 측정하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교사로서 다음 시험에서는 시험문제를 어떻게 하면 오류가 없이 잘 출제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될지 나름대로 반성도 하게 되고,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통계자료 분석은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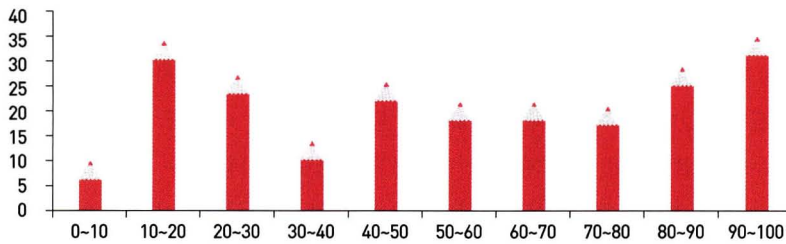
## 성적 통계분석

### 가. 반별 성적

반	예 상 평 균: 55							전체
	1	2	3	4	5	6	7	
평균	53.3	57.1	55.8	54.2	47.4	53.9	55.1	53.8

### 나. 전체 성적분포

점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계
인원	10	34	27	14	26	22	22	21	29	35	240
백분율(%)	4.16	14.16	11.25	5.83	10.83	9.16	9.16	8.75	12.083	14.583	100



## 문항분석

### 가.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정답률	난이도	문항 번호	정답률	난이도	문항 번호	정답률	난이도
1	72.5	쉬움	7	58.0	보통	13	56.2	쉬움
2	32.1	쉬움	8	68.0	보통	14	65.9	어려움
3	75.9	보통	9	57.1	보통	15	54.9	보통
4	37.9	보통	10	47.9	보통	16		
5	34.1	쉬움	11	62.9	어려움	17		
6	72.5	보통	12	49.7	어려움	18		

다섯째, 교사들은 공개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평소 공부습관과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학습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본인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실태 파악을 통계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지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 보충자료: 통계를 활용한 영어 학습자 실태 분석 및 지도 방향

### 가.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구분	영어수업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기다려지지는 않지만 영어시간이 되면 잘 참여한다.	영어시간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계
학생수	22명	14명	4명	40명
비율	55%	35%	10%	100%

**알게 된 점 및 지도 방향** 2-2반 학생 55%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다려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영어시간이 되면 잘 참여한다는 학생도 35%나 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학습활동을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영어시간을 재미없게 생각하는 10%는 별도의 보충과정을 더 흥미있게 구안하여 부진을 막아야겠으며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영어 학습에 자신감과 흥미를 갖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발화

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발화한다.	자신감은 다소 부족하나 말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말하기가 쑥스럽다.	계
학생수	12명	22명	6명	40명
비율	30%	55%	15%	100%

**알게 된 점 및 지도 방향**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넣어 발화하는 학생의 수는 30%로 나타났다. 55%의 학생들이 자신감은 다소 부족하나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습활동을 더욱 재미있게 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안내하여 꾸준히 말하기 기회를 많이 준다면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준별 활동 시에 개인차에 알맞은 보충지도를 하여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교실영어 사용에 대한 의견

구분	영어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내용이해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어와 병행하면 좋겠다.	몸동작과 같이 하면 대충 이해한다.	알아듣기 어렵고 지루하다	계
학생수	12명	18명	6명	4명	40명
비율	30%	45%	15%	10%	100%

**알게 된 점 및 지도 방향**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실영어에 대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가능한 학생들이 30%이며, 어느 정도 이해하나 한국어와 병행하면 좋겠다든지 동작 언어로 하면 대충 알아듣는 학생이 대체로 60% 정도 되는 수준이다. 간단하고 필수적인

교실영어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동작 언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해야겠으며 타 교과시간에도 자주 쓸 수 있는 말을 수시로 이용하여 학생들이 교실영어를 익숙해지도록 영어교사로서 부단하게 연구해야 됨을 알 수 있다.

### 라. 가장 흥미 있는 영역

구분	Game	Pop-Song	Role-Play	Chant	Storytelling	계
학생수	16명	12명	6명	4명	2명	40명
비율	40%	30%	15%	10%	5%	100%

**알게 된 점 및 지도 방향** 약 40%의 학생들이 게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노래 및 역할놀이가 45%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있어서 활동적인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통하여 수업을 할 때 움직임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구안하여 활용해야 되는 필요성을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 마. 수준별 학습에 대한 생각

구분	보충, 심화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것이 좋다.	보충, 심화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계
학생수	24명	12명	4명	40명
비율	60%	30%	10%	100%

**알게 된 점 및 지도방향** 약 60%의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보충과정의 학생들도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보고 학습수준이 향상되니까 좋아하는 것 같다. 전체활동, 짝 활동, 모둠활동을 골고루 하며 수준별 활동의 경우 수준별 가르기, 이동하기, 활동하기 등에서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바. 통계를 활용한 영어 학습자 실태 분석 및 지도방향

평소 필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자실태 통계분석을 통해 우선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으면 영어 수업을 재미있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해주어 그것에 적합한 흥미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수업 중 기본학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학생은 보충학습을 제시하고, 기본학습을 충분히 이수하고 보다 수준이 앞서나가는 학생은 그 수준에 맞는 심화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준별 활동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였으며 적극적이고 흥미있게 학습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소집단, 개별 병행수업으로 학습 집단을 조직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노래(Pop-Song)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고려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흥미있는 학습활동으로 재미있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속 통계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학교 통계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통계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담임교사로서 그동안 자살·우울증척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검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지도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확립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진로·진로적성 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적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의 정기고사 평가분석을 통하여 어떤 과목에 학습이 부족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학생 개개인의 성적분석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평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통계수치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평소 영어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통계)를 활용해 수업을 훨씬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계는 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생활 속 유익한 학교 통계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통계가 아주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

# 그것 봐! 너도 할 수 있어!

장려상 이주화



## 들어가며

저는 학원 선생님입니다. 사교육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상 저의 경험과 이야기가 단순한 학원의 경쟁력 수단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그 동기와 개발의 취지가 순수했고, 아이들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를 위하여 아직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통계를 보여주는 숫자의 힘과 그 변화의 묘미에 흥미로움을 느끼며, 그 안에 숨어있는 통계학과의 연관성을 수년째 고민해 오던 결과, 이제 통계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통계를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성의 법칙

처음 말단강사로 학원에 갔을 때, 화려한 강의력과 아이들을 사로잡을 스타성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펼쳐 놓더라도,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지칠 대로 지친 어린 학생들에게 오프라인의 열정적인 강의는 수면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생기있게 만드는 것은 티칭이 아닌 학생 한명한명에 대한 관심어린 휴먼터치와 공감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학생상담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재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관심이라고 생각한 후, 학생들의 행동과 행태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관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점은 한 명의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관성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싫어하는 자기보존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듯,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점점 공부를 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감을 세부적인 행동과 그 결과로서 명백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뉴턴이 제시한 운동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그 법칙은 사람에게 더 강력히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 한 명의 성향과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결국 코칭의 숙제는 바로 '저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관성을 깨어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 안이하고 귀찮아하는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변화의 즐거움으로 탈바꿈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체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데이터의 중요성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태도(출결사항, 테스트 사항, 과제 이행사항 등)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이를 엑셀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학습태도를 정량화시켜 수치적인 개념을 부여한 후, 이를 학생들의 학원생활과 관련한 평가적 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상·벌점 제도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단순히 아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닌, 상담과 코칭의 기본자료로 구현함으로써, 진지하고 스토리가 있는 한 달간의 공부 흔적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별 체크되는 자신의 학습태도 데이터가 차곡차곡 한 달씩 쌓여 감에 따라 자신의 종합점수가 변동하는 추이를 학원 입구에 게시함으로써, 경각심과 그때그때의 자기교정을 학생 스스로 하도록 하고, 동료집단 사이의 영향력이 큰 시기인 만큼, 서로 간의 보이지 않는 은근한 선의의 경쟁 또한 아이들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성적은 아이들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공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B1		=IF(ISBLANK('1'B12),"",1'B12)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신동훈	MBS점수	97		2015년						MBS											
중2	출석일수	5		봄학기						(학습태도관리)											
중2Premium2	감점율	0.70																			

수업 날짜	출석 ○△×	기본어휘(VOCA)			독해(RV)		듣기말하기(LSP)		문법연작(GW)		온라인		독해(RV) 테스트		듣기말하기(LSP) 테스트		문법연작(GW) 테스트				
		회고 완성도(%)	P/F	교재	교재 숙제 완성도(%)	교재	교재 숙제 완성도(%)	교재	교재 숙제 완성도(%)	교재	교재 숙제 완성도(%)	점수	P/F	점수	P/F	점수	P/F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	100	A	P	○	100	A	○	100	A	○	79	B	100	A	100	P			100	P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	100	A	P	○	100	A	○	100	A	○	100	A	100	A	55	F	98	P	100	P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x	100	A		○	100	A	○	100	A	○	100	A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	100	A	P	○	100	A	○	100	A	○	100	A	100	A	100	P	100	P	90	P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	100	A	P	○	100	A	○	100	A	○	100	A	100	A			100	P	100	P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	100	A	P	○	100	A	○	100	A	○	100	A	100	A			95	P	90	P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태도 데이터

결석하고, 숙제 안해오고, 성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너의 게으름과 나태함’ 입을 지적하자, 학습태도 점수 공개는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 흥미로운 이슈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학원의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학습태도 자료를 직접 입력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엑셀의 시트변환 기능을 활용하여 매월 말 “학생별 학습태도 종합점검표”를 분석하여 이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날은 왜 결석을 했는지, 왜 지각을 했는지, 이때 테스트는 왜 fail을 했는지,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난달 너의 학습태도 점수는 몇 점임을 들은 친구들은, 마치 한 달 동안 지출했던 카드사용명세서를 본 사람 마냥, 지난 한 달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하루하루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다음 달, 일 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어린 마음속에 숨겨둔 그들의 딱딱한 관성이 조금씩 말랑말랑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진지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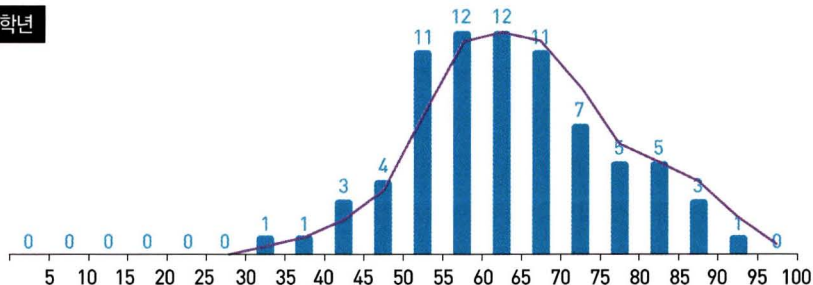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이 되었고, 그때 던지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이들의 뇌리와 영혼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드디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드백에서 최고의 노하우는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공치사가 아니라, 한 달간의 공부내용이 기록된 체계화된 자료를 보며 세밀하게 접근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해 주고, 꾸중을 들을까 겁내고 있던 일에는 훈계와 반성, 그리고 격려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를 선언해 줄 때 아이들은 조금씩 혹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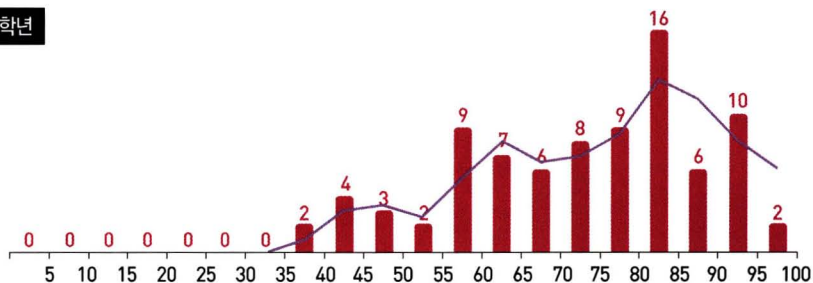
한 명 학생의 수치화된 자료를 반 학생 전체의 데이터로 집계, 변환시켜 활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수준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반과 낮은 수준의 반(6개 레벨)의 학습태도 점수를 그래프화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단순한 평균점수의 비교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반 학생들의 학습태도의 전체적인 성향과 분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들끼리 서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그 종 모양의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는 지금 이 위치고 나는 지금 여기고, 공부 잘하는 개는 저기니까 다음 달에는 숙제를 좀 더 잘해와야지, 지각하지 말아야지’ 등등 저마다 더 높은 반을 올라가고 싶은 그들의 시나리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짜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 손가락 하나하나가 바로 학생들 마음의 비전과 단기목표라는 생각을 했을 때 벅찬 보람과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지극히 정확하고 냉정한 것이지만, 저 수치와 데이터에 담긴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가치, 꿈과 노력임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보다 깊은 통계학에 대한 지적 욕구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배우고 성장한 것은 저 자신임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2학년



3학년



반 학생 전체의 성적 데이터 집계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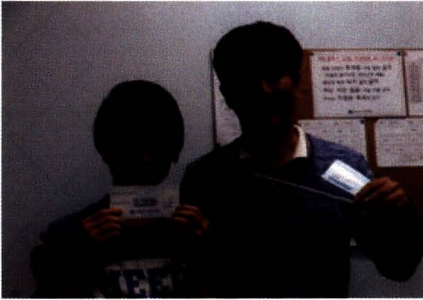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며 이러한 과정이 3~4년간 계속 됨에 따라 더욱더 흥미롭고 정교한 통계적 실증데이터의 가능성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툴을 가지고 코칭을 받았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도 진학하게 되자, 이제는 이 자료들을 시계열적인 방향으로 관리, 분석하여, 진정한 학생의 공부 히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이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공부해왔고, 얼마나 집중했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생 한명한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좀 더 거대한 코칭 툴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가 학습태도와 관련된 점수였기에, 이러한 학습태도의 변화가 실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즉 노력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뚜렷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보여줄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얼마나 더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인내심의 문제였습니다. 막연히 그냥 좀만 더 하라고, 무조건 열심히 하자고 대책없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노력과 결과의 인과합수를 사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성취동기를 강력히 올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 I love Statistics

일천한 지식이지만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학원 곳곳에 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여러가지 학습실적들이 통계적인 틀을 바탕으로 분석되고 공지됨에 따라, 학원의 관리력과 경쟁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어휘력향상 추이 분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역별 출제 경향 분석 등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이러한 자료들은 따로 받아 가고 싶다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전공필수로 억지로 수강했던 통계학 개론 수업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생소했던 개념을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되뇌이며, 혹시 이 이론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 십번씩 들고, 어찌하면 더 깊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하는 열정에 통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한걸음 한걸음 알아가는 통계와 통계학의 세계가 즐겁고 재미있는 제 삶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 혼자만이 걷고있는 길이 아니며, 너와 비슷한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함께 걷고있는 성장의 길이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의 위치에서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 봐! 너도 할 수 있어!”



통계로  
소통하는  
세상이야기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통계청장 유경준

**발행처** 통계청 대변인실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042.481.2514 / 042.481.2045

**디자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